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091호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일부 장관들 말로만 '지방분권'… 세종청사 근무 외면 '여전'

세종참여연대,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 '세종청사 근무일 자료 없어'

일부 장관들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일이 여전히 적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다가오는 8월 과학기술부 이전을 앞두고 각 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종참여연대가 공개한 세종시 이전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의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서울청사 근무 일수와 세종청사 근무 일수, 서울과 세종 외 근무 일정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과 국무총리 국회출석일을 뺀 363일 중에서 131일을 세종에서 근무해 세종 근무 36.1%, 서울 근무 46.8%, 해외순방 17.1%로 취임 초에 약속한 세종과 서울 근무율 4:3(세종에서 4일, 서울에서 3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보공개 요청을 한 11개 부처 중에서 나름대로성실하게 답변한 6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율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취임 후 61일 근무 중 세종 집무 30.5일, 5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2월 23일 제일 늦게 이전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11.7%로 '낮음'(단 행안부는 올해 2월 23일 세종청사 이전으로 상대적으로 근무일수가 낮은 것이 불가피)이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보공개요청에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세종 중심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체계 확립 방안 마련이라는 공통된 기준에 따라 현임 장관의 근무 현황을 4월부터 6월까지 총 근무일과 서울 근무일, 세종권역 근무일, 서울 · 세종 외 근무일로 공통되게 구분해 정보공개를 한 반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해당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없음'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는 등 부처마다 상이한 답변 결과를 내놓은 점이다.

세종 참여연대는 "이같은 답변 결과는 중앙부처에 규정이나 확립 방안이 있음에도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으로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모습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세종청사 근무율로 본 장관들의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는 매우 낮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부처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부처 장관들의 솔선수범과 결단이 중요하며, 각 정부기관에게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노박래 서천군수 면담 김성구<사진 오른쪽> 대전투데이 사장과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9일 오후 서천군수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 국회 찾아 '혁신도시' 협조 요청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예정된 내부 일정을 모두 미루고 국회로 달려갔다.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강훈식 · 이규희 · 이은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 · 재정적 손실이 매우 컸고, 현재도 세종시로 충남 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은 인구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앞선 8일 국회를 찾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김정환 기자

대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에 IBM 힘 보탠다

리안 IBM 아 · 태지역본부 총괄 부사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지원협약

글로벌 ICT 대표기업인 IBM이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리안 IBM 아 · 태지역본부 총괄 부사장은 지난 3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의 역량에 IBM이 기술력을 보태기로 한 이날 협약은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2단계 사업 추진은 물론 대전형 스마트시티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서 대전시를 직접 방문한 리안 총괄 부사장은 이날 협약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허브' 구축전략을 컨설팅하기로 하고, 허 시장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상존하는 도시문제들을 스마트시티 기술로 해결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국토부의 신규 정책사업이다.

IBM은 전 세계 2,000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참조모델인 미국 콜럼버스시의 챌린지사업에 '스마트 콜롬버스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고급 데이터분석 · 운영'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와 IBM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각종 행정시스템과 챌린지 실증 서비스 모델들을 분석해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IBM의 인공지능 기반인 '왓슨 익스플로러' 및 DB2를 통해 정형 및 비정형의 데이터 분석도 진행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특별시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IBM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보태서 한층 더 발전된 스마트시티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안 총괄 부사장은 "대전시의 역량과 IBM의 기술을 합쳐서 대전시가 경쟁력 있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토종 지역기업인 CNCITY에너지와 연무기술 등 10개의 기업과 함께 연말까지 실증사업과 상세기획을 추진해 2단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6곳의 1단계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성과를 다시 평가한 뒤 1~2곳을 선정, 내년부터 약 240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ONETOP
저희 원탑스튜디오는
제품 및 기업 홍보영상, CF 방송 광고 등
다년간의 수많은 영상제작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젊고 창의적인 감각을 더 해
광고주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전광판 및 스크린 영상 광고 | CF 방송 광고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문의전화 | 070-7434-8508

대전지역 與野의원 "대전 혁신도시 지정 총력"

이은권 · 박병석 의원 "지역 인재 유선 채용,역차별 문제 바로잡아야"

사진왼쪽부터 이은권 · 박병석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서는 일자리, 지역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며, 인근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그리고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건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빨대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 30만 3천여 명 중 대전에서 전입한 인구가 10만 7천여 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덕특구로 인한 실제 지역 인재채용은 굉장히 미미할 뿐 아니라 분원을 만들어 전국으로 계속 분산 중이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므로 지역 인재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 타 시 · 도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더 심각한 지역 격차와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던 대전과 충남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대전과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의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2만6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인재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전 ·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요청에 국토부가 첫 공식답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놓은 것으로 향후 대전 ·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은권 의원을 비롯해 대전 · 충남 지역 의원들이 대전 · 충남의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의 시작을 예고했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던 무쟁점 법안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되어 순번에서 밀리며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이 의원은 "비록 오늘 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주에라도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혁신도시법 통과를 위해 박병석(대전 서갑, 민주당)의원도 9일 해당 상임위가 아닌 국토위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은"법안소위장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대전 · 충남은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며"기대감이 있었지만 대전시만 하더라도 인구 150만 도시에서 인구유출과 지역 경쟁력 정체돼 있다"고 혁신도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 추진이 1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책 보완의 일환으로 대전 · 충남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 심사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청한 법안은 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에 의무화 하는 것"이라며"여야 소위 의원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복기자

청양군, 정산정수장 급수지역 수질안전대책 발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우라늄 검출사태를 겪은 정산정수장 급수지역과 지하수 사용 마을의 수질 안전성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9일 오후 2시 청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건강검진 실시,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 청양지역 노후관로 교체사업, 군내 211개 마을 수질검사 등 사후대책을 내놨다.

김 군수는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급수 대상 1,191가구 2,94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면서 10일부터 12일까지 정산면 · 목면 출장검진, 7월말까지 누락자에 대한 청양군보건의료원 검진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이 검진을 통해 흉부 엑스선 촬영, 신장 및 간 기능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게 된다.

김 군수는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6개월 후 2차 건강검진을 한 번 더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앞당겨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긴급하게 협의한 결과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을 2020년 충남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청양군은 또 수돗물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 심리에 대응, 군내 211개 전 마을에 대해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 시 단계별로 정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청양지역 광역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내년부터 167억원을 투입, 노후관로를 완전히 교체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현행 홈페이지 게재와 마을 게시판 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활용 등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겠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모든 방법과 가용 자원을 동원해 주민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의회, 제11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가져 충남도의회는 9일 의회 1층에서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 도의원 및 가족, 전임의장 등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유병국 의장은 기념사에서 제11대 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 정당 등 각계 각층의 대변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빈틈없이 이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위원회 출범, 의회제도개혁 TF팀 운영, 인사청문회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 세종보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언행이 불일치하는 세치 혀끝 말장난을 당장 그만두고 세종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미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보 유지'가 세종시민의 뜻임을 공개적으로 공표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 역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세종보 해체 신중론'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정확한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는 심산으로 오히려 정부는 세종보 해체와 관련하여 그들 입맛에 딱 맞춘 편향된 토론회를 열어 세종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기본계획 당시부터 '도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건설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주거시설과 보행교 등의 건설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신생도시의 기본계획을 훼손시키는 일에 아무런 근거 없이 갖은 억측과 가짜뉴스를 동원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모든 패널이 환경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등 친 정부 인사인 짜고 치는 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을 끊임없이 농락하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선진국의 강들은 수 백 개의 보를 설치하여 수질과 수위 등을 알맞게 조절하고 있다. 보는 하나의 문명이며, 보의 해체는 문명을 거슬러 선진 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일이다. 논리도 없이 자연 그대로를 주장하는 정부와 환경단체는 왜 먼저 현대의 정보문명, 교통수단, 주거 및 냉 · 난방시설 등을 모두 벗어나 '자연 그대로' 살지 않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이상민 의원, 남북교류 정책소외 없도록 법적근거 마련

향후 한반도 경제 핵심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9일 남북교류 관련 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처 교류와 민간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의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 인력양성 · 과학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 ICT 분야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일부 부처는 남북관계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부처에 빠져있어 남북교류 정책에 있어 과학기술 · CT분야 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을 확대하여 민간과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영역의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에 소외되는 분야 없이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남북한이 상생하는 남북협력을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하여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구본환 의원 "중장년층 위한 정책 적극 이뤄져야"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에게 인생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남경아 본부장(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정책을 소개하면서, "호모헌드레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은 서울시민 5명 중 1명으로 정책의 지원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세대로써 종전 복지서비스 개념을 탈피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은 배움과 탐색, 일과 참여, 문화와 인프라 3개 영역으로 지원하고 있고, 추진기반으로 콘트롤 타워인 50플러스재단이 있으며, 권역별 허브 역할은 50+ 캠퍼스 6개소, 지역기반 플랫폼은 50+센터가 자치구별 1개씩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50+ 세대는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 50+ 캠퍼스에 약 16만명이 이용하며 삶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류재룡(유성구노인복지관장), 양준철(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생), 윤유경(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강혁(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구본환 의원은 "현재 40 · 50대의 중장년층은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과 혼란 속에 있다"라며 "장년층을 위한 대전시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됨과 동시에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 · 법률지원 체계 구축해야"

신용현 의원 "이주여성 인권 · 안정적 체류 보장위한 제도와 문화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사진)은"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이가 있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 명을 넘어섰다"며, "상당 수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들의 체류허가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질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 주차난에 몸살 대책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내포신도시의 최대 난제인 여름철 축산 악취와 주차난, 버스터미널 조성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의원은 9일 열린 제 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남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고는 하나 고질적으로 7-8월만 되면 폭염에 창문도 못 열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고, 가장 큰 대기업의 축사를 이전시키지 않는 이상 악취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포신도시의 발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악취 원인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지자체 공공조형물 관리 방치… 혈세만 축내

국민권익위, 공공조형물 건립 개선 권고했으나 이행 한 곳도 없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8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144개는 이행이 미흡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 · 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 · 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 ·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6,287점이 설치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등 건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2014년 9월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으며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미이행 상태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하고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일부만 이행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 82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39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현재까지 이행실적이 없었다.

특히, 대전시와 대구시는 이행을 완료한 자치구가 없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이 저조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개가 미흡한 상태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건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조형물 점검 · 관리가 미흡한 점 등 주요과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형물 난립을 감시하고 건립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립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128개 지자체만 조례 등에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는 조례가 있긴 했지만 주민참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137개 지자체가 조례에 전문가 ·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 등은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민간 건립 조형물만 심의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조형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119개 지자체만이 관련 규정이 있었고 세종시 등 12개 지자체는 주관부서 선정, 대장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업무라는 이유로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조형물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충남 태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경주시 · 군위군은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감사부서에서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치단체별 제도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제도운영 사례도 있었다.

137개 조례 제정 지자체 중 경기도, 경상북도, 경기도 구리 · 동두천 등 44개 지자체는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62개 지자체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총괄부서가 있는데도 현황 조사,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사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137개 조례 제정 지자체 중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중구 등 62개 지자체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중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46개 지자체는 주기적 점검 규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수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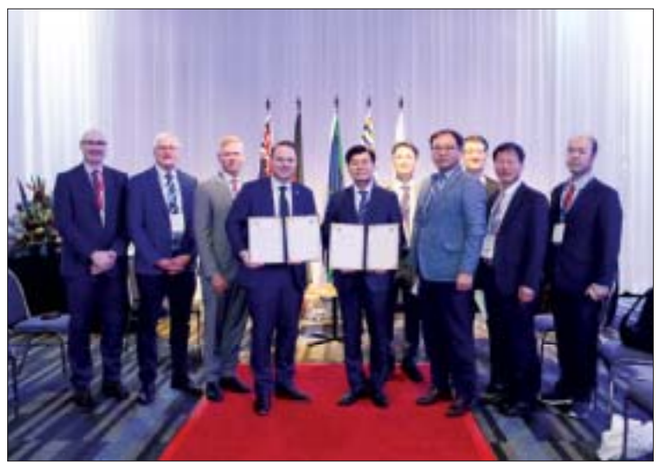
실제로 강원도 강릉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7개의 공공조형물(91억 원 상당) 건립 관련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 구성 정보를 알려준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당선되도록 도와준 심사위원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세종시-브리즈번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약속

이춘희 시장, 슈리너 브리즈번 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호주 브리즈번시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 개발과 우호관계 발전에 힘을 모은다.

이춘희 시장은 9일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아드리안 슈리너(Adrian Schrinner) 브리즈번 시장과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개발 협력 활성화 및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호주 브리즈번 시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호주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와 브리즈번시는 스마트시티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친환경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2020년 가을 개최 예정인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에 브리즈번 시를 초청, 스마트시티 기술 및 관련 정책 개발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한국과 호주의 지방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분야는 물론, 행정 전반에서 호주 브리즈번 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브리즈번은 5,904km² 면적에 230만 명(2015년 추계)이 거주하고 있는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시티스마트 CEO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김태선 기자

현대제철, 핵심 청정설비 교체 가동… 미세먼지 배출량 대폭 줄여

SGTS 설치 후, 2020년 배출량 허용기준比 40%대로 감소 기대
내년 6월 3소결 완공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절반 이상 감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소결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SGTS (Sinter Gas Treatment System: 소결로 배가스 처리장치)가 본격 가동되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5월 28일 1소결 SGTS를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2소결 SGTS가 정상 가동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1일 배출량이 140~160ppm 수준에서 모두 30~40ppm 수준으로 줄었다.

소결공장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곳으로 이번 신규 설비의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20년 배출허용기준(충남도 조례기준) 대비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내년 6월 3소결 SGTS까지 완공돼 3기 SGTS가 모두 정상 가동되는 2021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기준 2만 3,292톤에서 절반 이하인 1만 톤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소결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7년 약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시작해 올해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새롭게 가동되고 있는 SGTS는 촉매를 활용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중탄산나트륨을 투입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로, 현대제철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매층을 다단으로 구성해 설비의 성능을 더욱 향상했다.

또 소결로 굴뚝 아래에 설치된 측정소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철소 내 환경 상황실로 전송되며 환경 상황실에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환경 상황실에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 환경공단 중부권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이 자료는 환경부를 비롯해 충남도, 당진시 등 행정기관에서도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한편 현대제철은 기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CSCR(Carbon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탄소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의 성능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설비 진단을 받은 후 2017년 개선 투자를 결정하고 약 21개월간의 설치공사를 거쳐 신규 설비를 완공했다.

현대제철은 7월 8일부터 2주 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당진제철소로 초청해 신규 환경설비의 가동 상황을 보여주고 개선사항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진제철소는 밀폐형 원료 시설 및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구축해 출범부터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각종 환경문제에 회사가 거론되면서 지역주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소결 배가스 신규 설비를 비롯해 향후 환경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동 정●●●

공동기획전 개막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10일 오후 2시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열리는 한밭교육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개막식에 참석.

천사의 손길 기탁식

황인호 동구청장= 10일 오후 3시 구청 1층 로비에서 동구주민사랑네트워크 천사의 손길 기탁식 개최.

주민자치협의회 7월 월례회의

박용갑 중구청장= 10일 오후 6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중구주민자치협의회 7월 월례회의' 참석.

대전시, 2019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 개최

정책발전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대전시는 9일 오전 1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무기체계 품질향상과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와 공동으로 '2019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무기체계 발전을 주도하는 시험평가체계 구축'을 주제로 군·산·학·연의 긴밀한 협업체계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군·산·학·연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시험평가 역량 강화, 무기체계 시험평가 관련 컨설팅이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한 시험평가 제도 및 정책발전 방안 등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이성용)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군의 미래작전 개념 및 전투수행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이 적용된 국방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식 아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학·연·군이 무기체계 발전을 주도하는 시험평가체계 구축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신뢰성학회,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영순 정무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국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 관계자 및 기업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체계시험평가세미나는 2009년 서울 공군회관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대전시가 국방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방산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2010년 유치한 이후 대전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겨 올해로 열 번째 개최되고 있다.

김태선 기자

이가네식품 이재수대표 부부, 대전 최초 나눔리더 가입 이가네식품 이재수 대표와 부인 윤정희 여사가 9일 오전 10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대전 최초 나눔리더 부부 회원으로 가입한후 대전모금회 박용훈 처장(왼쪽), 최진수 팀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행정 '구청장 현장공감 로드' 실시

유성구 주민의 목소리 경청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현장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9일 구즉동 민원 현장을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2019년 현장행정 '구청장의 현장공감 로드'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송강근린공원에서 구즉동장, 구즉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한 잔디 보호 등 시설정비 건의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청장의 현장공감 로드'는 월 1회 이상 구청장과 현안 담당 부서장, 동장 등이 동행해 부서 미종결 과제나 다수 복합 민원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유성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건의된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최고난도 심혈관시술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 가능해졌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TAVI 승인기관 지정‥심장질환 치료선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이 최고난도 심혈관시술로 꼽히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TAVI) 승인기관에 지정됐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은 70세 이상 고령이나 수술 위험성이 높은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 동맥을 통해 인공 심장판막을 갈아끼우는 최신 치료법으로 심혈관 중재시술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

이 시술은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며, 대전성모병원은 이를 통해 심장질환 치료 분야에서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은 시술시간이 1~2시간으로 짧고 입원기간은 3~5일로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부담을 낮추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대동맥판막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의 증상이 있으며 중증이 되면 대부분 2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만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장은 "현재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의 적응증은 고령 등의 이유로 수술적 판막 삽입술을 시행하기 위험한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중등도 및 저위험군 환자에게도 적응증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수술적 치료와 함께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의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8년 대전·충청권 최초로 심혈관센터를 개소한 대전성모병원은 중재시술(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혈관 질환, 구조적 심장질환 시술) 전문의, 심장영상, 심부전, 심장판막 질환 전문의, 부정맥 전문의 등 분야별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13년 지역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TAVI)을 성공한 바 있다. 송병배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본격 시행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 6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대상 시설물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축·증축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며, 기존 복지시설 및 민간시설은 필요시 생활환경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불편이 없는 환경조성으로 편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덕구'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박정현 구청장의 의지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정현 청장은 "장애인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하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편안한 대덕구 만들기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코스타리카서 사회연대경제 선진사례 직접 체험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 7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의 한국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코스타리카, 캐나다, 미국 등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현지시각 8일 오전 8시부터 오전 코스타리카 정부 사회 연대경제 협의체 회장단과의 워크숍 및 코스타리카 대통령 주최 한국 대표단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을 대통령 궁으로 초청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쿠에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도 블레스 카말고 영부인과 마빈 로드리게즈 커데로 제2부통령 등 정부 10여 부처 장관 등을 대동하고 나서 한국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한 이에 앞서 열린 코스타리카 정부 사회 연대경제 협의체 회장단과의 워크숍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코스타리카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해 듣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및 도시재생 등의 사례를 공유한 후 앞으로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과 대통령 환영 면담을 마친 후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한국 대표단은 국립커피연구소 이카페(Icafe)와 교육·금융 협동조합 코페나에(COOPENAN)를 찾아 현지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탐방했다.

서구 공직자 대상 자치분권 대한 이해 공감대 형성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11일과 25일에 서구청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 여건을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민·관이 동반 성장하는 자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상반기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1,000여 명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구는 미래발전을 이끄는 10대 전략과제 발굴, 서구형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민선 7기만의 색깔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서구 관계자는 "자치분권 시대에는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라며 "자치분권에 대한 공직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구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 그늘막쉼터 19개소 설치 완료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에 그늘막 11개소·그늘목 8개소 조성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로나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그늘막쉼터' 19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금년 그늘막쉼터 조성은 차량 운전자 시야나 신호등을 가림을 방지하기 위해 동부경찰서의 협조 속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11개소에 설치 완료했고 그늘목은 교통섬, 횡단보도 주변 유휴공간에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녹음을 넓게 형성하는 나무를 설치 적합도 조사를 거쳐 총 8개소에 식재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폭염특별대책으로 용전네거리, 가양네거리 등 교통섬 및 횡단보도에 그늘막쉼터 설치와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행동요령'을 담은 부채 4,500개를 제작·배부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구는 주민들의 그늘막 파라솔 추가요청에 따라 판암초교 앞 네거리 등 5개소에 2차 설치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그늘막 설치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시민들에게 폭염쉼터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모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행동요령을 준수하고 주변 어르신 건강살피기 및 안부전화하기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초복맞이 삼계탕 독거노인가정 전달

대전 중구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희규)는 9일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유재경)로부터 초복맞이 삼계탕을 후원받아 독거노인가정에 전달했다.

10여명의 회원들은 한약재와 토종닭을 직접 고아 만든 삼계탕에 과일, 떡을 함께 포장해 50여 가정에 전달했다.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미용, 방충망 설치, 저장강박으로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마을의 행복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유재경 회장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땀흘려 봉사해준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류시장 제2기 상인대학 졸업식

중구,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위한 시장 마케팅 전략 등 배워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일 오류시장 내 고객쉼터에서 '오류시장 제2기 상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생 35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졸업장 수여, 모범생 표창, 격려사, 졸업생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6월 1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상인대학은 시장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전통시장의 브랜드 전략, 상품개발관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김윤곤 오류동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진 상인들께 감사하며, 협력과 소통으로 최고의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박용갑 청장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구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

행정절차 이행 순항 예상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선화동 136-2번지 일원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해 1월 정비계획 변경 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 연접부분 공공공지 조성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교육환경영향일조 검토 결과를 반영한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한 것이다.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은 후속 조치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선화2구역 건축규모는 사업부지 5만 9,034㎡ 중 상업용지 4만 649.3㎡에 아파트 49층 1,596세대 및 오피스텔 37층 372실, 판매시설 4층을 건립하며, 정비기반시설 1만 8,384.7㎡를 도로, 소공원, 공공공지로 조성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를 재개발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서산 ~ 웨이하이 국제여객항로 신규개설 확정

맹정호 서산시장 '강하고 안정적인 항로 만들 것'… 2022년 취항목표

서산시(시장 맹정호)에 따르면 지난 4일 ~ 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간의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시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시 웨이하이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공식 합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맹정호 서산시장이 직접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위해교동훼리와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산 대산항 대중국 카페리 항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 결과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의 취항 가능성 및 항로 다양화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서산~웨이하이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맹정호 서산시장 취임 이후 서산~룽청항로의 지연을 타개할 목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회담에 유리한 조건인 중국 측 발의 의제 채택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해운회담에서 단번에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산~웨이하이 항로의 중요성 및 경제성을 강조하는 등 한국과 중국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론적으로 신규항로 개설을 성사시키면서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항은 현재 인천, 평택과 연결되는 2개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인근에 중국의 3대 공연인 화하성을 관람할 수 있는 공원 등 이름 있는 관광지가 많아 북중국여행의 주요 항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웨이하이시는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서산시는 풍부한 웨이하이시의 관광객 및 화물 수요를 집중 공략해 서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우리 서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제여객선 취항이 여러 국제적 요인에 따라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CIQ 등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히 준비해 임기 내인 2022년 취항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 추진되던 서산~룽청 항로는 맹정호 시장이 사업자를 직접 만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 협의했으나,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신조기간 중 투입되어야 하는 선령 25년 미만의 용선 가능 대체선박이 세계적으로 부재해 지연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월랑2리 장수마을의 도전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마을현안 문제를 마을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월랑2리 장수마을에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랑2리 장수마을은 본격적인 사회적 농업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4일 마을회관에서 가칭)사회적협동조합 '꽃피우다(이사장 하종중)'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가졌다.

사회적농업은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농업인, 복지, 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가칭)'사회적협동조합 꽃 피우다'는 지난 5월 11일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정관을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관개정(안)을 만들어 총회 승인의 절차를 가졌다.

이에 앞서 월랑2리 장수마을은 최근 충청남도 중장년일자리 아이템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회적농업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사업의 주체로서 비영리 마을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꽃피우다'를 설립키로 하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월랑2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마을만들기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와 함께 사회적농업 특화마을 구축을 위해 사회적농업 전문가와 마을조직운영 전문가, 지역대학과 교류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 일본 수출규제 6개월 버티기 어렵다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1. 신호전송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현재 제조하는 기기에는 100% 일본산 CPU가 들어가고있다"며, "재고가 6개월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CPU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거래처도 마땅히 없고, 설사 다른 업체 C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제조 라인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 수도권 전자부품 제조업체 관계자 B씨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현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금형업체 경영인 C씨는 "안그래도 대일본수출이 점차 줄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짧은 납기인데, 무역분쟁이 확산되어 한국수출제품에 대한 통관지연이 있을 경우 수출타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59.0%의 기업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3개월 미만 28.9% + 3~6개월 30.1%)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9%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의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할 만큼,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현재의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등이 조사됐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절반 이상인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 (34.6%)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하며 "8월초 중소기업 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당진시 주택 · 건축물 재산세 295억 부과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당진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8만 건에 대해 2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6만 4000건 69억 원, 건축물분 1만 6000건 226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3%증가했다.

시는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규 건물 증가를 꼽았으며, 주택은 연납 기준 변경(10만 원→20만 원)으로 본세 10~20만 원인 경우 지난해까지 1기분과 2기분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 7월에 전액 과세되면서 1기분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와 ARS 전화(080-350-0022)로도 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담당자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166건에 31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4%, 1억 6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 4064) 또는 물건소재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기자

인터랙티브 영화 '아오르비' 예고편 공개

카스-유튜브 함께 국내 첫 제작…본편은 15일 공개 예정

오비맥주(대표 고동우)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유튜브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영화 '아오르비(AORB)'의 예고편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카스가 이번에 공개한 '아오르비' 예고편은 '선택장애'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모든 선택을 대신 해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모든 시민들이 정부에게 선택의 자유를 빼앗겨 통제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최우식)은 '모든 선택이 응원받는 곳'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이번 영상은 긴박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더해져 탈출하는 주인공과 주인공을 잡기 위한 정부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예고한다.

카스가 유튜브와 손잡고 제작한 '아오르비'는 영상 뒤에 이어질 스토리를 시청자들이 직접 선택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인터랙티브 영화다. 약 7분 길이의 본 영화에서 시청자는 보는 중간 총 5번 주인공의 운명과 영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선택 희비극 아오르비'의 본 영상은 오는 15일 유튜브와 카스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다.

카스가 선보이는 영화 '아오르비'는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주변의 의견에 의존하는 메이비족(결정장애) 세대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야스(YAASS)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영화 제목 '아오르비(AORB)'는 A 또는 B를 선택하라는 뜻의 'A or B'를 밀레니얼 세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송병배기자

'2019년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개최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방자치 발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분권과 협력으로 만드는 더 좋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10일 전국 70여개 지자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지방정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단체장 비전포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2년차를 맞이하여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단체장의 자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였다.

먼저, '정부혁신 및 자치분권 활성화' 특강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방향 공유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② 이종후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지방자치단체와 예산과정', ③ 전북현대모터스FC 백승권 단장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정당과 선수(選數), 지역의 단체장이 참여함에 따라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기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에 이르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참석하기로 해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단체장들이 민선7기 2년 차 추진방안을 구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단체의 성공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시범운영

공주시, 주민자치 분야 주민 소통창구 역할 기대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8일부터 주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 행정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됐다.

센터는 앞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진단 및 지역 자원 발굴 ▲공주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후관리 및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올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청 주민공동체과에서 사업 집행 담당자와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직원과의 전문적 경험 축적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상호학습을 실시한 뒤 내년 정식 개소를 통해 독립 운영될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시와 지역공동체의 중간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적 가교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충남 도립박물관 설립 '닻을 올리다'

충남도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충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충남 도립박물관 설립 방향 및 추진전략과 관련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이하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박물관 건립이 최근 각 지자체에서 열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포럼은 4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박물관 관련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는 윤태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의 '전국 박물관 설립동향과 충남 도립박물관의 설립 필요성',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의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성공사례', 이관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의 '충남도립박물관 내포문화 특성화 방안', 서흥석 충남역사박물관 박물관운영부장의 '도립박물관 운영체제 제안' 순이다.

대전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앞당긴다

A형 간염바이러스, 자연방사성물질 등 검사 항목 확대

대전시는 도심 속 생활 주변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 등 선제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 및 전 항목 수질검사를 조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가뭄, 전쟁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도심 내 공원이나 아파트, 학교 등 모두 196곳에서 하루 4만 4,317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번 수질 검사는 평소 9개 항목에서 46개 항목과 A형 감염 바이러스, 천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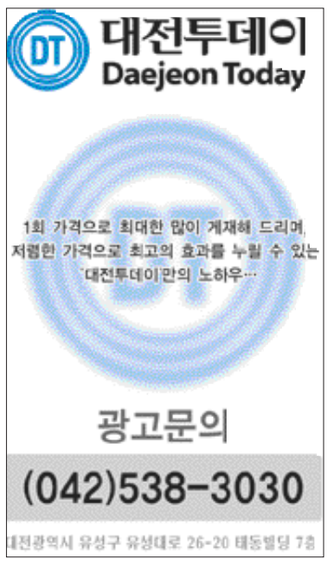
앞서, 대전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기술자문 협의체 구성하고 5월 한 달 동안 자연방사성물질 기준치 초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6월 한 달 분석을 거쳐 이달 17일 라돈 검출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수질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즉시 음용중단 조치와 함께 안내판에 게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질 오염 원인 규명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A형 간염바이러스 및 인위적 배출 규제가 불가한 자연방사능 물질(우라늄, 라돈 등) 기준치 초과 검출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기온 및 환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아 대부분 미생물 항목이 문제가 되므로 비오는 날 물 받기를 피하고, 강우 후 수질회복 소요 시일이 지난 후 이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관리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2019학년도 특수교육 캠프 운영

홍성교육지원청,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지도교사 등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홍성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지도교사 등 총150여명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 자연나라 수련원에서 '2019년 특수교육 캠프'를 실시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 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2박3일 동안 숲속쌀린지, 사각꽃이 함 만들기, 물놀이, 튜브썰매, 미니 펫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여러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경험하여 사회적응력 향상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주도연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돕는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한밭대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운영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며 직무역량 강화, 조기취업 활성화 도모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기업 직무체험을 통해 재학생의 실무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취업설계를 지원하고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운영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임준묵)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프로그램 신청학생이 대전시 내에 있는 기업에서 최장 6개월간 준직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배정받아 근무 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채용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스타트업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경험한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후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낸 바도 있다.

임준묵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 사업은 경험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는 현재 채용 트렌드에 가장 걸맞은 사업"이라고 말하며, "본 사업이 취업 준비생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밭대는 대학일자리본부에 뉴리더 전담 매니저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상시 배치하여 진로 · 취업 상담, 직무체험 학생의 사후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정환기자

철도공단-강원도-코레일, 상호 협력하기로

국토 균형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일 강원도청 본관에서 강원도, 코레일과 강원도 내 철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 기관은 ▲ 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 ▲ 철도 역세권과 유휴부지 개발 ▲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 ▲ 철도관련 정보 교류 등 강원도 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민에 대한 철도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단은 현재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등 5개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옛 경춘선 및 영동선의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레일바이크 등 상업시설을 개발 ·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춘천~속초선 역세권(춘천역, 속초역) 등 개발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뮤지컬 '워치' 7월 8일 본격 연습 돌입

3.1평화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창작뮤지컬

3.1평화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뮤지컬 '워치' 공연팀이 7월 8일 전 제작진과 출연진이 첫 모임을 가지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했다. 첫 연습으로 전 배우진의 대본 리딩이 진행되었고 대본 리딩에 앞서 정태영 연출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올리는 공연인 만큼 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하이 홍커우공원 도시락폭탄의 주인공 '윤봉길'역에 조성윤, 미래를 보는 초능력자 '박태성'역에 정원영, 한인애국단을 이끄는 '구혜림'역에 스테파니(김보경), '백정선'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김구'역에는 황만익 배우가 캐스팅 되었고, '구혜림'과 함께 한인애국단의 리더인 '계춘삼'역에는 김윤하,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담당하는 '정정화'역에는 노지연, 폭탄제조 전문가 '향차도'역에는 장원령, '시라카와 대장'역에는 김수영, '다나카 소좌'역에는 진상현 배우가 캐스팅 되었다. 또한 이윤환, 지수환, 김태환, 박도경, 정경훈, 김문학, 이광표, 김성재, 남궁민희, 사다빈, 이유리 배우가 앙상블로 참여한다.

뮤지컬 '워치'는 7월 16일 2시 30분 양재시민의 숲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뮤지컬의 곡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9월 26일에는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10월 2일에는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무대에 오른다.

이정복기자

청양전통시장, 토요텃밭장터 · 별자리야시장 인기

고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 선사하면서 인기 모아

청양전통시장상인회(회장 명노우)가 운영하는 토요텃밭장터와 별자리야시장이 방문 고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9일 청양상인회에 따르면, 두 장터는 쇠퇴 일로에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낮 시간대에 텃밭장터를 열고 밤 시간대에 야시장을 열고 있다.

시골장의 정취를 듬뿍 담아 지난 6일 열린 텃밭장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신선함을 자랑하는 농 · 특산물과 고추빵, 수수부끄미 등 풍성한 먹거리로 방문객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 별자리야시장에서는 상인회, 지역농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을 준비해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상인회가 무료로 시원한 생맥주를 제공해 반가움을 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토요텃밭장터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별자리야시장은 오는 20일 다시 개장하며, 폭염기 휴장 후 9월과 10월 5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한남대, 여름방학… 다양한 국제 글로벌 캠프 개최

해외 자매대학 대상 글로벌 캠프 진행

한남대(총장 이덕훈)가 여름방학 동안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 글로벌 캠프를 개최해 캠퍼스가 국제화 열기로 가득하다.

8일 한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무어아트홀에서 미국 자매대학 학생을 중심의 한국문화연수프로그램(KSSP: Korean Studies Summer Program)이 3~4주 일정에 돌입했다. KSSP는 미국 자매대학 2개교 14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중국의 자매대학인 안후이이공대학에서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3명이 참석해 총 17명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2019 NY 연계 '뉴욕 K-Food Fair 소비자행사'

aT, CJ ENM 주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CJ ENM 주관으로 열린 전 세계 최대 K컬쳐 컨벤션인 'KCON 2019 NY'과 연계해 뉴욕 제이콥 K.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된 '2019 뉴욕 K-Food Fair'에는 총 3만 명의 뉴요커들이 방문해 K팝의 흥과 한식의 맛을 맘껏 즐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밀레니얼 세대 한류 팬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거점도시에서 B2B/B2C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K-Food Fair를 올해는 최초로 CJ의 KCON 행사와 함께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K-Food Fair 부스에는 총 5만 5천명의 KCON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방문했을 정도로 젊은 뉴요커들은 K-Food의 맛에 열광했다. K-Pop을 이을 한류 콘텐츠는 K-Food라 할 만큼 홍보관 안팎은 방문객과 대기줄로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송병배기자

양승조 지사, 홍성의료원장 인사 놓고 '잡음'

지난해 부적격자 올해 적격자 둔갑… '말 따로 행동 따로'

충남도의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최근 홍성의료원장 후보자를 선정한 것을 두고 공직 안팎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혹평이 거세다.

더욱이 집행부의 견제를 위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도 그동안의 결과를 볼 때 '속빈 강정'이라며 집행부 들러리 전락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충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달 8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성의료원장 후임자 선정을 위해 도는 5월 14일 7인의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추진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회의를 통해 공고(안)과 응모자 심사안을 마련, 21일간 공고를 통해 응모한 7명 중 3명을 지난달 20일 양승조 지사에게 추천했다.

양 지사는 5일 후 의료원장 후보자로 P(57세, 前순천향대 구미병원장)씨를 지명하고 지난 8일 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 도의회는 오는 17일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P씨가 지난해 8월, 천안의료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해 최고 점수로 도지사에게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양 지사가 '적격자가 없다'고 탈락시켰는데 이번에 이유불문, 지명을 받은 것이다.

P씨가 병원장 시절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카드를 '깡'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다 적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소문도 있다.

이렇다 보니, 도청 안팎에서는 '불과 9개월 전 부적격자가 아무런 치유의 흔적 없이 적격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됐던,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급을 받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와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론은 시큰둥하다.

A씨(58세, 홍성군)는 "도민들은 양승조 지사가 변호사 출신이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말 따로 행동 따로'여서 실망했다"라며 "양 지사 주위에 직간하는 공직자가 없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 단체장을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행부의 들러리를 우려했다.

도청 간부공무원 L씨는 "P씨가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양 지사가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소환하면서까지 산하 단체장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공염불이 됐다"고 도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보건소, 자살예방 연합 캠페인 펼쳐 아산시보건소는 지난 8일, 아산시 읍내동 주공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복지관·노인정과 함께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연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연합 캠페인은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로드 캠페인으로 읍내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이 됐다.

서천소방서, 비인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9일 비인중학교 입지관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인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대전보훈청, 대전시의회 및 대전봉사체험교실과 보훈가족 위문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은 9일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와 대전봉사체험교실(회장 권흥주)과 함께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거주하는 전상군경 김모씨(만90세) 댁에 여름이불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보훈나눔 실현을 위한 보훈공감'을 실시했다.

대덕구, 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119시민체험센터서 실습하며 위기대응법 익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9일 대전광역시 119시민체험센터에서 회덕동과 법동 지역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행동요령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19시민안전체험센터 전문강사의 이론설명과 체험을 병행해 이뤄졌다. ▲ 소방안전 체험 ▲ 생활 응급처치 체험 ▲ 위기탈출 체험 ▲ 지진 체험의 4개 코스로 진행됐다.

김태선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대전중부서, 경찰서 하모니 카페서 열어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이동주)는 8일 경찰서 1층 하모니 카페에서 경찰서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작은 음악회는 대전 시낭송인협회 김종진 대표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제목의 시 낭송에 이어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조혜영의 아리랑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오주영, 안은실, 보컬 임지묵의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You raise me up 등 노래가 이어져 일상에 지친 경찰관과 민원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이정복기자

경찰청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범조 조심하세요"

본격적 여름 휴가철 시작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가용품·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8월~8월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강화 기간 중에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를 해왔으며, 지난해 단속강화기간(2018년 7월 2일~8월 15일)에는 총 517건, 45명을 검거해 그 중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①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②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이며, ③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 또는 계좌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병합 수사할 것이다. 또한,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당부

물놀이 안전사고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물놀이 사망사고 중 수영미숙·음주·안전부주의가 전체의 78%, 사고연령은 10대 이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물놀이객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장구 착용 ▲수심이 깊은 곳이나 입수금지 지역에선 수영 금지 ▲물놀이 전 음주, 과식 금지 ▲어린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행 ▲입술이 창백해지는 등 몸 상태의 이상 징후 시 휴식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는 조금의 부주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여름철 물놀이 활동을 나갈 때는 기후와 환경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논산소방서, 소방민원은 '소민터'로 쉽게 이용하세요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 적극적 이용해 줄 것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온라인 시스템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민터'(소방민원센터)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서류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방민원센터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해당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논산=김성구기자

세종시 "도심 속 물놀이장서 피서 즐겨요"

7월13일~8월18일 세종호수공원·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세종호수공원 물놀이섬과 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세종호수공원 물놀이섬은 매주 화요일, 방울새어린이공원은 매주 월요일이 휴무이며, 우천시를 제외하고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물놀이섬과 물놀이장은 수심 30~50㎝의 풀과 안개분수, 미끄럼틀,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을 갖췄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샤워실 및 화장실이 운영된다.

시는 청결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물놀이장 청소와 매달 2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6명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날리며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소방대상물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매년 한번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해 큰 비용을 부담하며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직접 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사용법,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공주소방서 예방교육팀(☎ 041-851-0264)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안전 위한 구명조끼 무료 대여 홍보

보령소방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대천해수욕장 119해변구조대 청사에서 지역주민과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물놀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수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구명조끼 무료대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119해변구조대 청사에 200여개의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있으며, 구명조끼 대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신분증 등을 보관 후 대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령소방서는 119해변구조대 청사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장 ▲소화기 사용법 체험장 ▲ 피서객 안전쉼터 운영 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당부

아산소방서,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월) 오전 9시 50분경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에서 대형화물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엔진룸 및 부품 전소로 인한 소실되어 약 1,65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 ▲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 ▲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성찬 아산소방서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모두의 지혜로, 함께 만드는 2020 세종교육정책"

세종시교육청, 7월 9·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타운홀미팅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 지혜로, 함께 만드는 2020 세종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타운홀미팅은 주요정책 입안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하고 이를 투표하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견수렴 과정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수립 출발점부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타운홀미팅은 작년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회로 나누어 첫날은 학부모·시민·교직원이, 둘째 날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혁신·미래·책임교육으로 만드는 학습도시 세종 2020!'이라는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과 활발한 상호토론이 이뤄졌다.

1부는 세종교육 혁신 2기 1주년을 맞아 세종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추진 방향을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교진 교육감과 참여 교육주체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2부 타운홀미팅은 세종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9~10명의 토론 참가자로 구성된 원탁 테이블에서 퍼실리테이터(테이블 토론 진행자) 주관으로 참가자들의 정책 제안, 상호 토론, 정책과제 투표 및 결과 공유 등을 거쳐 2020년 세종교육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 참가자 300여 명의 발언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대형 화면을 통해 확인하며 각자 선호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투표를 하는 등 참가자 모두에게 흥미진진함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선정된 주요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제안된 모든 정책들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수립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교육청 팝업창(http://bit.ly/sejong2020, SNS페이스북, 카오스토리)를 통해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대화하고 고민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진행한 제4회 타운홀미팅에 참가한 148명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2%(매우만족 45.9%, 44.3%)의 참가자가 타운홀미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타운홀미팅에서 채택된 진로교육 내실화,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지역과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등 3대 정책과제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세종진로체험센터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 탐구반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 학교지원센터 확대 구축, 마을학교와 마을방과후 돌봄 확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됐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교육청, 북한이탈학생 진로문화캠프

북한이탈학생 학교생활 성공적 적응 적극 지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역 내 탈북학생들의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충북 괴산에서 북한이탈학생 진로문화캠프를 개최한다.

도내 탈북학생 30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 이번 진로문화캠프에서는 지도교사 4명, 탈북 선배 10명이 멘토로 참여해 캠핑문화 체험과 함께 개인 심리상담, 진로진학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에는 올해 4월 기준 북한 출생 탈북 학생 46여 명,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94여 명이 재학 중이다. 이처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탈북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사 연수와 함께, 교사와 탈북 선배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문화캠프도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양경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충남교육청은 탈북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졸업 후 미래 통일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굿네이버스 대전서부-KARI하늘꿈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및 사랑의 저금통 후원금 전달식 지난8일 굿네이버스 대전서부지부는 알뜰시장 수익금과 사랑의 저금통을 KARI하늘꿈어린이집으로부터 전달받았다.

2020 전국대학박람회 및 맞춤형 대입상담 실시

7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진행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7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0학년도 전국대학박람회 및 입시진학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충남대 등 대전·충청권대학, 포항공대 등 52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상담부스 운영 및 입시설명회'를 운영하며, 대입지원단 교사들을 통해 '1:1 진학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현직교사들이 운영하는 '1:1 진학상담부스'에서는 대전교육청 소속 진학교사와 충남교육청 소속 진학교사가 24개 부스에서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을 진행하며, '대학생 전공상담부스'에서는 대교협 추천 대학생 전공 멘토단 대학생이 6개의 부스에서 전공 관련 학과 및 학습,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대학 입시 특강'으로는 대교협 대표강사 전북 임실고 강세웅 교사의 「자기소개서 작성법」(7. 12(금) 10:00~11:00)과 대교협 대표강사 서울 배명고 채용석 교사의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맞춤형 지원전략」(7. 13.(토) 10:00~11:30)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1:1 진학상담'은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09:00부터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수험생의 성적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좀 더 충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러 대학의 입학 전형을 직접 살펴보고, 1:1 진학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중앙도서관,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아산시중앙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영어 동화책을 활용한 도서관에 적합한 영어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영어특화 프로그램은 영어독서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바람직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다채롭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영어요리, 영어미술, 영자신문(ENIE), 뮤지컬 영어, 엄마표 영어 특강, 이지영 작가초청회, 등 영어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끌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 영어는 종강일에 수강생들이 직접 뮤지컬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어특화 프로그램은 7월 10일 오전 9시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530-6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 청남초, 아름다운 공예교실 실시

2019학년도 청양 마을연계 교육과정

청남초등학교(교장 오인구)는 지난 8일 전교생 31명을 대상으로 청양 마을연계 교육과정 '아름다운 공예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봉면 신원리에 위치한 한결자연학교 마을 강사를 초청해 천연 가죽을 이용한 나만의 필통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다.

마을 강사는 가죽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죽에 무늬를 새기는 방법과 자신이 원하는 색을 칠해 자신만의 필통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가죽에 여러 번 물을 묻혀 원하는 위치에 무늬를 새기고 이어 가죽 전체를 원하는 색의 잉크로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려 자신의 필통을 완성시켰다.

교육에 참여한 3학년 김나림 학생은 "똑같은 무늬를 새겼지만 모두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나만의 필통을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천안학생상담자원봉사자 57명 대상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지역맞춤형 연수 실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은 9일과 10일 양일간 천안학생상담자원봉사자 57명을 대상으로 상담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개발 및 건전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 문제, 비행,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 선도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게슈탈트 부부가족상담센터장인 김영기 성신여대 심리학과 외래교수가 자기표현이 부족하거나 심리치료에 비협조적인 아동·청소년의 상담에 활용되는 게슈탈트 관계성향상 프로그램(이하 GRIP)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GRIP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 신체 감각, 욕구 등을 명확하게 알면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현재 경험을 명료하게 해 자신에 대한 지각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기법이다

허삼복 교육장은 "앞으로도 위기학생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꿈키움 멘토링 문화체험캠프' 실시

부여교육지원청 Wee센터, 관내 고등학교 4교·중학교 3교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윤학중) Wee센터는 7월 8일 관내 고등학교 4교, 중학교 3교의 멘토 16명과 멘티 34명을 초청해 부여 관내 영화관에서 문화체험캠프를 가졌다.

이번 문화체험캠프는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어 2학기에는 멘토링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마련되었으며, 행사 후 멘토단 협의회 시간에는 1학기 멘토링 사례발표 및 2학기 멘토링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여교육지원청 Wee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당진 서정초, 찾아가는 진로특강 열어

제주대학교 김충현 교수의 '내 인생 성공 스케치' 강의

당진 서정초등학교(교장 정호경)는 '꿈끼 탐색주간'을 맞이해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일 6교시 강당에서 '찾아가는 진로특강' 수업을 실시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특강은 '내 인생 성공 스케치'라는 강의 주제로 제주대학교 김충현 교수님이 '진로와 직업의 세계'로 수업을 진행했다.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단순히 직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 목표지향적인 삶,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했으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타인과 함께 나누며, 목표를 세우고, 큰 꿈을 갖기를 희망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부평생교육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대상

꿈이 자라나는 도서관 체험 학습 '호응'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원장 박종진)은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호응을 받고 있다.

상반기 28개 기관, 957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고,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체험학습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법 지도와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관을 즐겁고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독서생활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체험학습에 관한 문의는 전화(☎661-83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교육부, 연세대학교 시작으로 종합감사

17일부터 사립대 종합감사 시작

교육부가 17일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종합감사를 받는 대학은 연세대다. 연세대 재학생이 3만 6000명으로 종합감사 대상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감사에 참여한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으면서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감사 대상인 사립대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총 16개 대학이다.

●동 정●●●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10일 오전 10시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에 참석.

국회 정책토론회

황선봉 예산군수= 10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세종호수공원에 설치 운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대표적인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세종호수공원 세호교에 설치하고 매년 여름철 운영에 나선다.

쿨링포그는 정수처리 된 물을 인공안개로 분사하는 시설로, 분무된 물이 주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 5월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종호수공원 세호교로 설치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근 세호교 북측 120m 구간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5~9월 중 낮 시간에 쿨링포그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이번 쿨링포그는 여름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세종호수공원에 설치했다"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구의 날 도전 골든벨 16일 운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제8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오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인구의 날 도전 골든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인구의 날 도전 골든벨에서는 시민들이 육아 상식과 세종시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문제를 풀며 가정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이날 도전 골든벨에 이어서는 세종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가 주관하는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과 어린이집 공연이 열린다.

이어 2부 문화행사에서는 다둥이 아빠로 유명한 가수 박지헌을 초대해 '2019년 가족사랑 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는 가족소망쓰기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된다.

이번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전 골든벨 참가 신청은 시민의 창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인구의 날 기념식은 세종시의 저출산 정책을 알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념식 외에도 다양한 가족 문화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봉 군수, 예산정수장 방문 안전 점검 실시

"수돗물 안전 공급에 만전 기해줄 것"

황선봉 예산군수가 수돗물 안전 점검에 팔을 걷고 나섰다.

황 군수는 8일 예산정수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황 군수는 예산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과정과 수돗물의 수질을 살폈다.

지방상수도인 예산정수장은 예당저수지(무한천 복류수)를 수원으로, 급속여과방식의 정수과정을 통해 일일 1만 43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붉은 수돗물 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맛과 냄새물질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예당저수지의 녹조 확산에 따라 분말활성탄 투입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산전·후 우울감 극복 위한 산림교육 추진 합심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생태환경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현진)가 8일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황성아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전·후 우울감이 있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맞춤형 산림교육'을 제공한다.

산림복지전문 법인기관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는 유아·어린이·청소년·가족·임산부·학부모·장애우·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게 맞춤형 산림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가 제공하는 산림교육은 숲멘토링, 숲놀이, 생태미술, 마을숲찾기, 생물탐사, 목공체험, 도시생태산책, 산림이벤트, 에코산책, 산림상담치유 서비스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10월 12일과 19일, 26일 3회에 걸쳐 원수산 MTB공원에서 가족맞춤형 산림교육으로 ▲가족나무 정하기 ▲가족화분 만들기 ▲원예체험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 및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가족맞춤형 산림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044-861-8521,5)로 문의하면 된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가족맞춤형 산림교육을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 및 정신건강 증진, 가족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철학 기반 중장기 비전 만든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강연회 및 비전수립 토론회 개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의 집단숙의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철학에 기반한 중장기 비전 수립에 나선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마을활동가·교사·학부모·관련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연회 및 비전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수립 토론에 앞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마을교육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허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용련 교수는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공동체는 교육 권한의 분배와 참여 주체들 간의 협치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라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허브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그간 3차례 개최된 참여학습모임과 토론회 운영결과를 토대로 모둠별 토의를 통해 중장기 비전에 담을 핵심키워드를 선정했다.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핵심키워드를 활용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중장기 비전안을 작성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비전안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학부모 등의 SNS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비전은 오는 10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장인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과 체험 학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집단숙의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앞서서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지흥원 간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협력사업의 확대 및 강사 공동 연수 등 협업체계에 힘을 모으게 된다.

김태선 기자

폭염경보 예찰활동 강화

홍성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폭염 예방 만전

홍성군이 지난 6일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만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특히 지난 해 유례없는 폭염특보 발령으로 혹염을 치른 만큼 군은 폭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458명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군은 건강보건인력, 사회복지사 등 488명의 재난도우미를 위촉한 바 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해 주 1회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 등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투입해 폭염관리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또한 군은 보행량이 많고 대기기간이 긴 교차로 등에 설치된 폭염대비 관내 그늘막 46개소에 대해 주 1회 수시 점검을 강화한다. 그늘막 상태 및 보행자 불편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그늘막 관리현황 DB 자료를 활용해 그늘막 추가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폭염대비 긴급 쉼터 65개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에어컨, 선풍기 등의 충분한 가동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재난도우미의 방문을 통해 혹서기 행동요령 및 건강체크도 실시한다.

또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쉼터 내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모바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쉼터 위치정보 및 개방시간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축산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폭염취약 시설 내 스크링쿨러, 자동냉난방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마을이장 등이 주축이 된 현장예찰 활동과 함께 피해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폭염특보 시 특히 취약시간대 14시에서 16시 순찰 및 방송활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밖에 군은 온혈질환 및 식중독 발행 현황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재난도우미 및 주민들에 대해 재난문자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재난도우미는 문자수신시 매뉴얼에 의거 취약계층 방문, 안부전화, 건강 체크 등을 긴급 실시하게 된다.

7월 중에는 폭염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폭염홍보물(폭염 행동요령 부채, 얼음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기간 단 한 분의 군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4개 분야 9개 과제로 수립된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6일 개최

홍성군은 7월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년 홍성군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2019년 홍성군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삼고 홍성군 남·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식, 하이런·유준의 공연과 기념품 증정,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방송인 김성환의 '남녀가 함께라서 행복한 양성평등' 강연도 기획되어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사회악 근절 홍보대사이기도 한 방송인 김성환은 '남녀가 함께라서 행복한 양성평등'을 주제로 방송생활을 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인생의 즐거움과 양성평등에 관한 방송인생을 담은 구수하고 담백한 이야기가 진행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격려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홍성군 내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개인 사업가 홍성남 대표… 세종 나눔리더 18호 가입

개인사업자 홍성남 대표는 9일 오전 11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나눔리더 18호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홍성남 대표는 "개인사업이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과 관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셨기에 사회에 돌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산군, 관광지 방문객 전년대비 250% 증가

"출렁다리 관련 일자리 334개 창출 효과도 함께 얻어"

올 상반기 예산군의 주요관광지를 찾은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무인계측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분기 간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은 158만 901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공표된 '2019 상반기 예산군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현황'을 보면 수덕사가 51만 80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만 1342명 늘었다.

이밖에도 ▲예당관광지 야영장 13만 9384명 ▲예당관광지 오토캠핑장 3413명 ▲추사기념관 3만 8982명 ▲예산황새공원 4만 7536명 ▲예산 사과와인(은성농원) 4955명 등 관내 주요 관광지도 지난해 대비 방문객이 25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인근 주요 관광지도 함께 방문하는 현상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 증가로 출렁다리 관련 일자리 334개의 창출 효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예당호와 덕산온천 권역을 양대 축으로 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예당호 출렁다리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예산군 관광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세종시 대첩로 사거리통신 착한가게 가입…매월 정기기부 참여

나눔도 초고속 통신만큼이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9일 오전 10시 세종시 대첩로에 위치한 사거리통신 휴대폰 가게 앞에서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사거리통신은 앞으로 매월 정기기부를 통해 세종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선다.

동정

추진상황 보고회

김홍장 당진시장=10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발전정책 토론회를 주재,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

가세로 태안군수=10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도 제1회 태안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

한마음체육대회

김돈곤 청양군수=10일 오전 10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회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청남면 이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 열려

청양군 청남면(면장 김흥근)은 지난 8일 면사무소에서 이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면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수원 활용 시설하우스 정화공급사업 주민설명회 ▲백제보 수위조절(저하) 알림 ▲폭염 대비 취약계층재난도우미 운영 ▲마을 상수도와 냉방기 점검 등 마을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영석 이장협의회장은 오는 10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김흥근 면장은 "주민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방법 및 홍보를 부탁드리며, 올해 상반기를 마치며 아쉬웠던 면정업무는 하반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비봉면 7월 이장회의 열려

청양군 비봉면(면장 이경학)은 지난 8일 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재산세납부 안내 ▲군민 안전보험 홍보 ▲2019년 고추·구기자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참여자 모집 안내 등 16건의 군정 및 면정 현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윤경호 이장협의회장은 오는 10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경학 면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주의 및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각 마을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난지섬 안전한 관광명소로 거듭난다

당진시, 어촌 뉴딜 300 사업·법무부 범죄예방 선도 사업지 선정

당진 난지섬이 지난해 어촌 뉴딜 300 사업 선정 이후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난지섬과 도비도 권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관광형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74억 원 등 총 10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과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해수부가 해안에 위치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국책 사업이다.

난지섬 권역은 올해 5월 다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 뉴딜 300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데 이어 최근 법무부로부터 범죄예방 선도 사업지로도 선정됐다.

어촌 뉴딜 300 선도사업 선정으로 난지섬 권역은 선착장과 안전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이 다른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보다 선제적으로 구축된다.

특히 이번에 범죄예방 선도사업 추가 선정으로 난지섬 일원은 어촌 뉴딜 300 선도사업과 연계해 범죄예방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게 된다.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 면담과 자료수집, 범죄영향평가를 거쳐 중장기적인 범죄예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범죄예방 컨설팅과 지역별 기초법질서 확립, 각종 자치활동 및 마을 안전지도 제작 등으로 구성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난지섬에 적합한 모델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무료 급속충전기 확대 설치

1540만원 투입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해 총 7곳 추가설치

태안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최근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1,54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7곳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태안장애인복지관 ▲태안군교육문화센터 ▲고남·이원면사무소 ▲태안군지체장애인협회 ▲아이원(장애인거주시설)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등이며,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충전속도가 빨라 2시간 이내로 완충이 가능하며 2대 동시충전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충전기는 크기가 작고 이동설치가 쉬워, 장애인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장에 배치해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은 이번 무료 급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의 전동보장구 배터리 소모와 방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로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음봉복합문화센터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8일, 음봉면포스코2차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음봉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봉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는 음봉면 주민들 40여명이 참석해 주민주요 관심사항인 인 음봉 복합문화센터사업 설명으로 사업이해를 돕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고 음봉복합문화센터가 아산시 동북권역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음봉 복합문화센터는 음봉면 월랑리 701에 공공도서관·돌봄센터· 공용주차장을 포함한 지하1층, 지상3층 실 연면적 3,060㎡규모의 시설로 계획 추진 중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사랑의 김치 담기' 행사 열려

남면주민자치위원회, 독거노인·저소득 가정 등 50가구 전달

태안군 남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귀열)가 지난 8일 남면복지회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열었다.

이날 '사랑의 김치 담그기'에는 최귀열 위원장을 비롯한 남면주민자치위원 24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250kg을 담갔다.

남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50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최귀열 위원장은 "이번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통해 나눔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당진시, 의료기관 선택 기준은 '의료인 전문성'

당진시가 9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시의 일반 의료 현황에 대한 분석과 수요 측정 결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진에는 현재 종합병원 1곳과 병원 3곳, 요양병원 4곳, 의원 80곳으로, 인구 당 의료기관 공급 수준은 전국 대비 86.51%로 조사됐으며, 당진 이외의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관외 진료율은 2017년 기준 37%로, 충남지역 주요 도시의 평균인 40%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올해 4월 한 달간 지역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 선택 기준으로 의료인의 전문성(193명), 접근 이용성(174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립병원 설립 시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319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용역 중간 검토 결과 당진시의 2020년 추정인구 19만 2578명을 가정한 추가 필요 병상 수는 200개 정도로 예측돼 현재보다 1개 정도의 종합병원 공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국내의 소아·아동 전문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모병원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출생률 감소 등 재정적인 이유로 독립 형태로의 운영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최근수기자

김헌수 팀장 '국무총리상' 수상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김헌수 가로등팀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성실하며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 팀장은 1994년 공직에 입문 후 맡은바 업무를 근면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위로는 촉망받는 후배공직자로 아래로는 존경받는 선배공직자로 직원 간 우애를 돈독히 해왔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돼 왔다.

특히, 김 팀장은 최근 가로·보안등 확대설치로 우범지역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했으며,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시스템 구축해 고장신고에 따른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하는데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헌수 팀장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껏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남양면 7월 이장회의 열려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정호)은 지난 8일 면사무소에서 이장 및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면정과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사전 준비사항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댔다.

김용만 협의회장은 "마른장마와 무더위로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 많은 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음봉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산시 음봉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광락)는 지난 5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인숙 외래교수가 주민자치 제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내용으로 질의·응답 등을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진행됐다.

최광락면장은 "이번 교육과 같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음봉면의 주민자치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이국환 주민자치위원장은 "본 교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키우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부여서동연꽃축제 성공적 개막

궁남지 연꽃의 아름다움과 빛의 향연에 취하다

제17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주말 동안 수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가득 메우면서 벌써부터 축제 대박을 예감하고 있다.

'궁남지 사랑, 연꽃의 빛을 발하다!'로 주제로 이달 28일까지 부여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지난 5일 박정현 부여군수,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장, 충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연꽃이 국화인 5개국 대사단,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궁남지 주무대에서 화려하게 개막됐다.

화려한 식전행사와 함께 부여군은 이날 개막식 하이라이트로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연꽃이 국화인 5개국 나라의 대사단(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카메룬, 캄보디아)과 함께 지난해 심은 세계 여러나라의 연꽃씨앗이 연꽃으로 개화하는 퍼포먼스를 가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껏 더했다.

특히,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와 연꽃을 테마로 꾸민 포룡정 '천화일화(千化一花)연꽃 판타지 쇼' 주제공연과 불꽃놀이는 환상적인 불빛으로 빛난 궁남지 경관조명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늦은 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축제 개막 이튿날에는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은 차량들로 행사장 주변도로뿐만 아니라 부여읍 전체 도로 교통이 한때 정체되었으며, 지역 대표 특산물인 굿뜨래 수박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한 판타스틱 연꽃화채 만들기 행사가 열려 축제장을 찾은 내·외국인들과 함께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개막식 이후 3일간 행사장을 집중운영하고, 7월 말까지 한 달간 주말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연꽃개화 시기동안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한 달 운영에 따른 상설 콘텐츠 강화를 위해 ICT연꽃주제관, 야간 경관조명, 품격과 수준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공연을 진행하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및 셔틀버스 확대운영과 에어컨 쉼터 설치, 이동식 화장실 추가 배치 등 축제장 편의시설 확대하였다.

군 관계자는 연꽃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궁남지에 연잎만 무성하고 꽃은 많이 피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연꽃은 8월까지 지속적으로 피어나고, 이번 부여서동연꽃축제는 7월 말까지 계속되므로 일회성 축제가 되기보다는 축제 분위기의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천만송이 연꽃이 만개한 부여 서동연꽃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면서 "남은기간에도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만여 군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배낭 연수로 전문성 강화

청년 농업인 4-H회, 성공 농촌 창업 자신감 부여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스마트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4-H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선진 농장 배낭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낭 연수는 청년 농업인 4-H회원들이 평소 방문해보고 싶었던 선진농장을 직접 선정해 신기술 습득 및 성공노하우를 학습하고 성공사례를 연수생들의 농장 여건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분야별 방문지를 살펴보면 식량 작물 분야는 ▲천안시 팥 생산거점 단지 ▲금산군 팥방미 재배 및 논 콩 재배단지 등을 방문하였고, 축산분야는 ▲ 당진시 조사료 단지, 한우 사육 농가 ▲하남시 특수가축 사육 농가 ▲ 천안시 한우 개량 농가의 현장 견학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촌 융복합분야의 ▲공주 장류 가공 사업장 ▲공주 유제품 생산 목장 ▲제천 홉 재배가공농장 방문을 끝으로 분야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식량 작물 분야 배낭 연수에 참여한 김준영 회원은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농가 경쟁력 약화로 논 타작물 도입에 대해 항상 고민이 많았었다."며, "전문성을 지닌 멘토와 함께 평소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선진 농업 사례를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현재 서천군 청년 농업인 4-H회는 7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젊은 감각을 장점으로 유통, 가공 분야에 스마트 마케팅 등을 동원해 기성세대 못지않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식량, 축산, 특화작목과 연계한 가공 분야까지 연계 시켜 농업 관련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농 4-H회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1-950-66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재정확대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계룡시, 추경 신속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 노력… 재정인센티브 1억 확보

계룡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지방재정 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응하고 지방경제 활력제고,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규모, 일자리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계룡시는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정부의 '확장적 1회 추경' 정책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긴 3월에 추경을 추진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해 본예산 대비 16.6%가량 증액한 2,321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편성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대 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달라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알아두세요"

천안시, 가격인상 홍보 나서‥폐기물량·재정부담 감소 효과 기대

천안시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확정한 후 매체 홍보, 온라인 홍보, 구두 홍보, 전단 배포, 공동주택 게시물 게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인상 가격을 알리고 있다.

시는 경제 여건 및 주민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08년 이후 11년간 인상하지 않았으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종량제 봉투 가격을 25%인상하기로 했다.

천안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17%로 전국 평균 345%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또 지난해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0억1100만원이 부과돼 청소행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그동안 달랐던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가격은 물론 색상을 미색으로 통일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1리터 40원 ▲2리터 50원 ▲3리터 60원 ▲5리터 140원 ▲10리터 250원 ▲20리터 500원 ▲30리터 750원 ▲50리터 1150원 ▲100리터 2300원이다.

가격 인상 이전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인다면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므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공무원 대상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서천군, 행동강령의 내용, 등 교육 통해 건전한 공직가치 되새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소속 공무원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천 실현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인 염건령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건전한 공직가치 정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동강령의 내용과 위반 사례, ▲공무원 비리 예방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건전한 공직 가치 및 공직관 수립으로, 이를 통해 참여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건전한 공직가치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박래 군수는 "공직자가 건전한 공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군민에게 신뢰를 얻는 첫 번째 순서"라며 "청렴한 서천 구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 또한 주기적인 청렴교육과 「부패예보제」 시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기업과 함께하는 미래인재 육성으로 사람 꽃 피우다

(재)논산시장학회-㈜맥키스컴퍼니, 장학기금 조성 업무협약

(재)논산시장학회와 ㈜맥키스컴퍼니가 논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손잡았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황명선 논산시장과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지역 미래인재 육성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맥키스컴퍼니는 향후 10년 간 논산지역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이제우린' 소주 한 병당 5원을 적립해 (재)논산시장학회에 연 1회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기탁하게되며, 총 1억 4천만 원의 기부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앞으로도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값진 투자에 함께해주신 맥키스컴퍼니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이고, 교육이 곧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시정철학으로 사람 키우는 논산,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충남·세종시 등에서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인재육성 사업은 물론 꾸준한 봉사활동과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영화와 함께 추억이 새록새록 계룡도서관 일요시네마 운영

오는 7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추억의 명화 무료 상영

충남 계룡도서관은 오는 8월 말까지 많은 영화팬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은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일요시네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룡도서관은 관내 영화관이 없어 영화 관람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억을 함께 나누고자 기존 어린이 영화 상영과 별도로 성인대상 무료 영화 상영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요시네마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계룡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어린 시절 TV에서 늘 '주말의 명화', '명절특선'으로 본 추억의 영화를 상영한다.

상영작은 올해로 개봉 80주년을 맞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7.14)를 비롯한 ▲로마의 휴일(7.21) ▲사운드 오브 뮤직(7.28) ▲오만과 편견(8.4) ▲맘마미아(8.11) ▲타이타닉(8.18) ▲오페라의 유령(8.25)으로 8월 말까지 총 7편이 상영된다.

이번 일요시네마 영화 상영은 실버세대에게는 젊은 시절 함께한 사람들과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영화의 감동을 선사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며 새로운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날 도서관을 찾아 젊은 시절 보았던 영화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일요시네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도서관(042-840-3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정

설명회

구본영 천안시장=10일 오전 9시 시청 시장실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폭염대비 그늘막설치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하고, 오후 2시 축구센터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사업 설명회에 참석.

이·통장체육대회

최홍묵 계룡시장=10일 오전10시30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 이·통장체육대회에 참석.

비전포럼

노박래 서천군수=10일 오전 10시 청양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제9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19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

한마음 체육 대회

박정현 부여군수=10일 11시 30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道이통장 한마음 체육 대회에 참석.

군민의 혈세 주민참여로 챙겨본다

부여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부여군(군수 박정현)에서는 지난 9일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과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 및 의회 추천 10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15명을 선정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운영회의에서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운영진과 분과위원회 운영진 구성을 심의 의결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발전방안 및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특히 읍면별 지역회의를 새롭게 운영해 1억 한도 내에서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를 통해 '정의로운 부여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논산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 4884건에 대해 79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부과)인 4만2696건 32억3300만 원, 건축물분 1만2188건 47억4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억48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3~5454)로 문의하면 된다.

동 정

제39차 정례브리핑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 1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실에서 제39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한다.

전국자치단체장 비전 포럼

김동일 보령시장 = 10일 오전 10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19 전국자치단체장 비전 포럼 참석.

충남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맹정호 서산시장= 10일 오전 11시 30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오후 3시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충남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에 참석.

2019 고입 설명회 11일 개최

보령시는 11일 저녁 7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중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2019 고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이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입과 진로 정보 제공으로 지역의 고등학교별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켜 관내 고교 진학을 장려하고, 교사들에게는 입시정보 습득과 진학지도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설명회는 온양여고 박성환 교사(전 대천여고 근무)를 초청해 '진로선택을 위한 고입, 대입 이야기', 대천고, 대천여고, 충남해양과학고 졸업생들의 '우리지역 고등학생들이 말하는 고입'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여장현 교육체육과장은"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선택으로 진로선택 만족도를 향상시킬 이번 설명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관련 후폭풍 차단

문정우 군수, 일부 재추진 움직임 보이자 불가 재확인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문정우 금산군수가 적극 차단에 나섰다.

문 군수는 8일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사업은 금산군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더 이상의 재심의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추진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최근 일부에서 금산온천테마파크 · 화상경마장 유치 청원서 서명운동 돌입 등 민심이 또 다시 갈라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군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는 모양새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 6월21일 금산군의회에 제출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동의 건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에 관한 모든 계획과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찬성과 반대를 떠나 수준 높은 군민의식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산=주연기기자

공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27개소 적발

상반기 위반율 31.4%…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통해 강력 대응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27곳을 적발했다.

시는 자체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올 상반기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314%인 27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중대 위반사업장 4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2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위반율인 148%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시는 미세먼지 등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 생태계 복원 본격 착수

보령시, 연육돌제 철거 및 원활한 해수유통 도모

지난해 무창포 닭벼슬섬 인근의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본구상 및 생태 조사를 마친 보령시가 본격적으로 연육돌제 철거 및 원활한 해수유통을 위한 본격 착수에 나섰다.

보령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시와 해양수산부, 시의원 및 민간 관련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996년 무창포 해수욕장과 닭벼슬섬을 잇는 연륙돌제가 설치된 이후 침 · 퇴적에 따른 해수유통 저하, 바다 생물의 종 다양성 감소 등 생태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연륙돌제 철거 등을 통한 최적의 갯벌생태계 건강성 회복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조류 및 퇴적 특성, 갯지렁이류 및 게류 등 대형저서동물 서식의 자연생태 현황과 관광 등 사회경제 현황을 기초자료를 토대로 편익 및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기본 및 실시설계의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는 방조제(연육돌제) 철거 및 교량 설치, 해수유통 및 모래유실 방지 공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강학서 해양수산관광국장은 "이번 무창포 닭벼슬섬의 갯벌 생태계 복원으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갯벌어업 및 생태관광지로의 발전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착실한 복원과 최적의 활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34억4400만원이 투입되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용역을 수행하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량설치 및 방조제 철거, 갯골조성 등 해수유통 및 모래유실 방지공사 등을 거쳐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령=김정미 기자

김정섭 시장 중학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마당 이어가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8일 중학동을 찾아 '시민과의 신바람 대화마당'을 갖고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마당은 김 시장을 비롯한 국장단과 시의원,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중학동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본격적인 시민과의 대화마당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당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원도심 빈 점포에 대한 활용방안 요구에 대해 김정섭 시장은 "원도심 일대와 산성시장 등에 방치된 빈 점포를 매입해 이를 청년들이나 예술인들에게 대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거점공간인 하숙마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하숙마을 담소방 등을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산성과 금강 둔치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에 대해 원도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고, 김 시장은 "백제문화제 개최 시 문화재 야행처럼 원도심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공주의료원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철거 후 진행되는 발굴조사를 마친 뒤 시민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고압선 지중화 사업 △제민천 수질 관리 △포정사 문루 광장 조성 등을 건의했다.

한편, 다음 순방일정은 △9일 반포면, 웅진동 △11일 계룡면, 금학동 △12일 탄천면, 옥룡동 △15일 월송동, 이인면 △16일 유구읍, 신관동 순으로 진행된다.

공주=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서산6쪽마늘축제 12일 팡파르

농산물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서산6쪽마늘을 주제로 해미읍성에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서산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해미읍성에서 서산6쪽마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회윤) 주관으로 '제13회 서산6쪽마늘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서산6쪽마늘을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우고 마늘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05년 시작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축제는 '행복담은 슈퍼푸드 서산6쪽마늘!'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판매, 전시, 체험, 공연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12일 열리는 개막식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6쪽마늘을 의미하는 6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명가수 초청공연, 마술쇼, 마임공연,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등 흥미를 유발하는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쳐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마늘빵 · 마늘아이스크림 · 마늘닭강정 등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간식도 판매된다.

또한 서산6쪽마늘은 물론 감자, 양파 등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 중간 깜짝 경매도 열린다.

특히 ▲서산6쪽마늘과 중국산 마늘 식별하기 ▲마늘 빨리 까기 ▲마늘 무게 맞추기 ▲마늘 먹고 룰루랄라(휘파람 불기) ▲마늘 빨리 꿰기 ▲마늘 던져 받기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6쪽마늘 6종 경기'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서산6쪽마늘축제에 방문하면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6쪽마늘을 비롯한 농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축제장에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6쪽마늘은 마늘 고유의 맛과 향이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전국 최고의 마늘로 사랑받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7월 정기분 재산세 84억 2929만원 부과

공주시 오는 7월말까지 납부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40건, 84억 2929만원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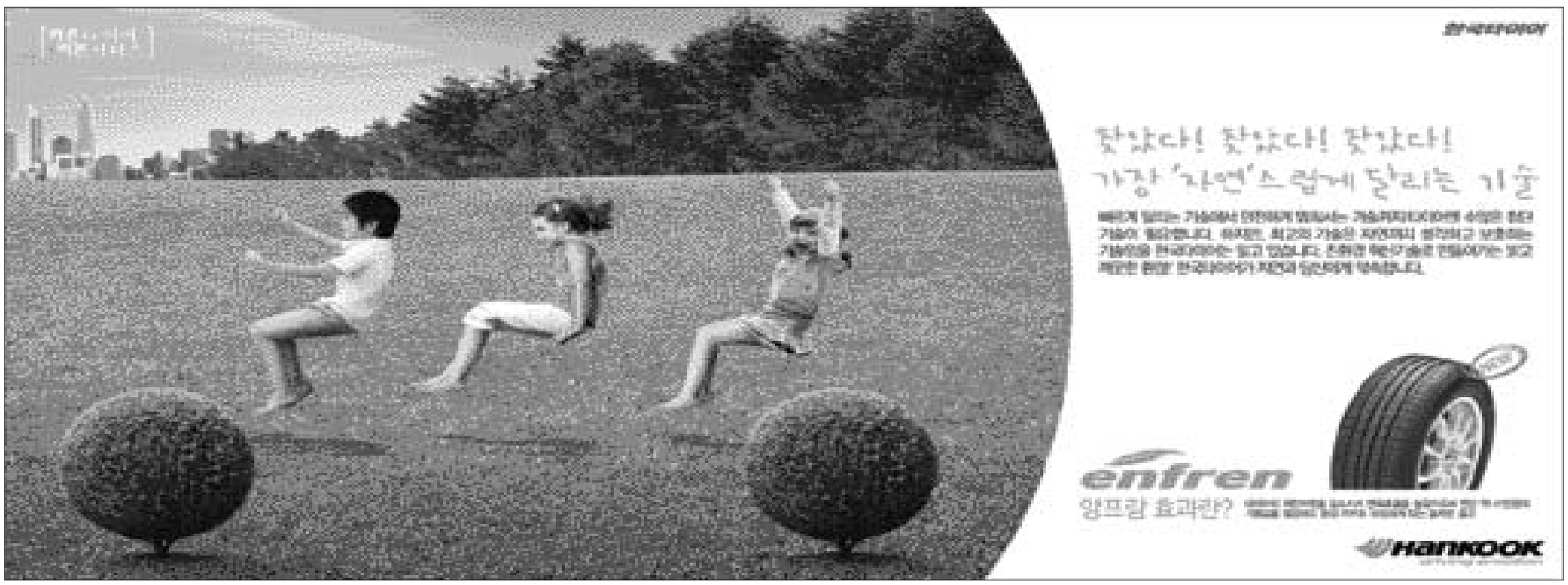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4억 4627만원이 증가했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 · 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오회장이 제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은 애리와 함께 오회장을 찾아가고, 수진과 오회장의 갈등은 점점 고조된다. 한편, 오회장의 한이 맺힌 설득에 마음이 흔들린 제니는 은석에게 도둑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말한다. 이에 은석은 제니의 손을 잡아주는데…

▲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미(이채영 분)는 석호(김산호 분)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집으로 찾아간다. 금주(나혜미 분)는 촬영 중 석호를 신경 쓰다가 부상을 입는다.

한편 재국(이한위 분)은 하루 동안 여름이(송민재 분)를 봐주기로 하는데…

▲ 봄밤 (MBC 오후 9시00분)

정인은 자신의 모든 걸 지호에게 다 보여줬지만, 지호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다. 지호가 욕심나서 너무 무작정 뛰어들기만 한 건 아닌지, 지호의 실수로 인해 외면했던 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것만 같은 정인. 지호와 정인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된 기석은 그걸 기회 삼아 태학과의 자리를 약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자리로 영국을 불러내는데…

케이블 명화

▲ 부산행 (OCN 오후 2시50분)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덮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긴급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2KM
지키고 싶은,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의 극한의 사투!

Ticket to Festival De Cannes
제 69회 칸 국제 영화제 공식 섹션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 초청 쾌거!
대한민국 재난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놀라운 비주얼과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부산행>.

▲ 퍼시픽림 (채널CGV 오후 7시50분)

태평양 한 가운데 놈들이 나타났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더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다!
2025년, 일본 태평양 연안의 심해에 커다란 균열이 일어난다.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이 곳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포탈이었고 여기서 엄청난 크기의 외계괴물 '카이주(Kaiju)'가 나타난다. 일본 전역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 지구 곳곳을 파괴하며 초토화시키는 카이주의 공격에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진다.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 돌입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인류 최대의 위기에 맞서기 위한 지구연합군인 '범태평양연합방어군'을 결성, 각국을 대표하는 메가톤급 초대형 로봇 '예거(Jaeger)'를 창조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퍼 파워, 뇌파를 통해 파일럿의 동작을 인식하는 신개념 조종시스템을 장착한 예거 로봇과 이를 조종하는 최정예 파일럿들이 괴물들에게 반격을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결이 펼쳐진다.
상상의 끝은 없다! 얼마든지 기대하라!

드리프트: 인간과 로봇의 합체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했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5:40 미인어
7:30 보스베이비
9:30 킹아서:제왕의검
12:00 WATCHER(왓쳐)
14:50 부산행
17:10 가디언즈오브갤럭시Vol.2
20:20 분노의질주:더익스트림
23:00 WATCHER(왓쳐)

◈ 채널 CGV
5:30 다크나이트
8:40 WATCHER(왓쳐)
11:30 아라한장풍대작전
13:50 인사이드아웃
15:50 리틀포레스트
18:00 점퍼
19:50 퍼시픽림
22:30 다크타워:희망의탑

◈ Mnet
7:50 MPD's MV코멘터리
8:20 M morning
9:00 고등래퍼 2
10:30 썸바디
12:1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베스트 퍼포먼스
13:50 MPD Music Talk(SNS/메신저)
14:50 니가 알던 내가 아냐
16:20 Daily Music Talk(SMS)
17:20 썸바디
19:00 인싸채널 체리블렛
20:00 니가 알던 내가 아냐
21:30 M COUNTDOWN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엠스플레이리스트
12:00 2018 NFL 플레이오프 진출팀 하이라이트
12:30 컴투스 프로야구 포인트 B 하인드
14: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메달모음
16:0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 SBS 스포츠
9:08 18-19 쇼트트랙 월드컵3차 하이라이트
11:07 18-19 V리그여자부
13:09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6:07 18-19 V리그남자부
18:06 18-19 V리그최고의 세트
18:50 18-19 V리그여자부
21:05 18-19 V리그여자부

◈ 온스타일
9:25 겟잇뷰티 2018
10:35 겟잇뷰티셀프 2018
10:50 밥블레스유
12:35 밥블레스유
13:35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5:45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6:55 겟잇뷰티 2018
18:10 겟잇뷰티셀프 2018
18:25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21:10 원나잇 푸드트립:언리미티드
23:15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0:15 YTN 24
21:00 뉴스만만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열려라 성공취업
21:00 장외주식 4989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3:15 <인생은 야생이다> 와일드 페루
15:15 <인생은 야생이다> 익스트림 애니멀 베이비 - 3부
16:10 이주의 법칙
16:39 TV 동물농장
19:01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1 <BEST PICK>이어 밀라언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음악 · 애니

◈ MBC 뮤직
8:20 음악앨범
9:20 2018 MBC 가요대제전
13:30 비디오 스타
15:05 MBC MUSIC HIT SONGS
15:50 쇼! 음악중심
17:03 주간 아이돌스페셜
18:00 Show Champion
19:30 주간 아이돌스페셜

◈ 애니맥스
6:00 고스트 닌자고
7:00 파파독
8:00 파워캐치 윈다 part 2
9:00 꼬마버스 타요3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1:00 퍼피구조대
12:00 애슬론 또봇3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녕자두야 시즌2
15:00 터닝메카드W 시즌2
16:00 헬로카봇5
17:00 지오메카 비스트가디언

◈ JEI 재능방송
7:00 다이노코어 2
8:00 파워캐치 윈다 part 2
9:00 터닝메카드W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또봇 10기-정의의 또봇
11:00 출동! 슈퍼윙스
12:00 새서미 스트리트-엘모 더 뮤지컬
13:00 소피루비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 영웅전사
16:00 놓지마정신줄
17:00 헬로카봇 5
18:00 파워레인저다이노포스 브레이브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영상소식 6:20 최자영 시인 내안애그대	6:10 세계의 눈 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7:50 인간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용왕님 보우하사	7	7:20 모닝와이드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25 아침마당	8:00 KBS아침 뉴스타임	8:30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8	8:40 수상한 장모	7:30 시청자뉴스	8:00 딩 동댕 유치원 8:30 시계마을 티키톡!
9:30 KBS 뉴스	9:00 여름아 부탁해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	9:10 좋은 아침	8:00 뉴스와이드 8: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8:45 방귀대장 뿡뿡이 9:00 출동! 슈퍼윙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00 CMB 스포츠 2019 KBO 리그 한화이글스 vs SK와이번스	9:40 라이브토크쇼-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한국인의 밥상	10:40 지구촌 뉴스		10	10:1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세계테마기행
12:00 KBS 뉴스 12	11:00 단, 하나의 사랑	11:45 기억.록, 100년을 기록하다	11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00 KBS 네트워크특선 별의 별 중계 1:50 다큐공감	1: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2:00 12 MBC뉴스 12:25 기분 좋은 날	12	12:00 SBS 12뉴스 12:50 TV동물농장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1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12:45 EBS 초대석
2:3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50 전국 노래 자랑	2:00 KBS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1: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2 1:55 2시 뉴스외전	1 2	2:00 뉴스브리핑	1:2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30 CMB 집중토론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3:05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3:25 최충우돌 만국 유람기	3		3:00 CMB뉴스 3:50 충청남도 영상소식	14:00 잭과 팡 14:30 미 앤 마이 로봇
4:00 사사건건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4: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45 MBC 플러스 특선 대한외국인	4	4:00 SBS 스페셜	4:00 파인드 맛집 4: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5:00 파파독2 5:30 강력추천 배틀트립		5	5:00 SBS 오뉴스	5:00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16:30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 동댕 유치원 16:50 한글이 야호2
6:00 6시 내고향		5:55 생방송 오늘 저녁	6	6:00 백종원의 골목식당		17:15 시계마을 티키톡
7:00 KBS 뉴스7 7:40 다큐멘터리 3일	6:00 KBS경제타임 6:30 2TV생생정보	6:50 용왕님 보우하사	7	7:00 생방송 투데이	6:00 뉴스와이드 6:20 CMB 스포츠 2019 KBO 리그 한화이글스 vs SK와이번스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 1
8:30 여름아 부탁해	7:50 태양의 계절	7:30 MBC 뉴스데스크	8	8:00 SBS 8뉴스 8:55 영재 발굴단		18:05 쓰담쓰담 동물원프렌쥬 18:20 톡! 톡! 보니 하니 2 18:25 야옹멍멍 귀여워
9:00 KBS 뉴스9	8:30 글로벌 24 8:55 살림하는 남자들	8:55 봄밤	9			18:40 톡! 톡! 보니 하니 3 18:45 역사가 술술
10:00 생로병사의비밀 10:50 오늘밤 김제동	10:00 단, 하나의 사랑	10:05 실화 탐사대	10	10:00 절대 그이	10:00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18:55 톡! 톡! 보니 하니 4 19:00 레전드히어로-삼국지 19:30 EBS 뉴스
11:30 UHD 숨터 11: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1:10 썸바이벌 1+1	11:00 라디오스타	11	11: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00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날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 직업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공연 27일 개최

예산군 문예회관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with 더원' 공연

예산군 문예회관은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해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with 더원' 공연을 오는 27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with 더원' 기획공연은 20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뮤지컬, 재즈,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채로운 장르를 콘서트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KBS '불후의 명곡' 우승과 함께 MBC '복면가왕'에서 가왕으로 등극돼 더욱 주목받는 명품 보이스의 소유자 가수 더원이 출연해 '사랑아', 'You raise me up' 등 다양한 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정통과 현대 재즈보컬을 모두 소화하는 재즈 뮤지션 이주미가 이국적이면서 풍부한 음색으로 재즈의 진수를 선보이고, JK재즈밴드 등이 출연해 뮤지컬 곡과 가요 등을 들려준다.

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인터넷(예산군 홈페이지), 방문, 전화(339-8211~5) 등으로 할 수 있다. 관람료는 1층 1만원, 2층 7000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예산군 문예회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해당 공연은 예산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예산=김성구기자

태안고 씨름부 '전국씨름선수권대회' 4관왕 달성 쾌거

장사급 1위, 역사급 3위

태안고등학교(교장 류재식) 씨름부는 지난 4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73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장사급 1위, 역사급 3위의 쾌거를 거두었다.

태안고 류재식 교장은 강력한 기량의 대학부, 성인부 선배 선수들과 함께 겨루어 보는 큰 경험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회 참가의 이유를 밝혔다.

시즌 4번째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도 고등부 장사급 정상에 오른 2학년 최성민은 이로써 시즌 4관왕(19 회장기, 19 증평인삼배, 19 시도대항, 19 선수권)을 달성했다.

압도적인 신체조건(196cm/128kg)과 기량을 앞세운 최성민은 2018시즌 4관왕을 포함해 이번 대회까지 2019시즌 4관왕까지 고등부 장사급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태안고 씨름부 2019시즌 남은 대회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하계집중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제1회 아산시협회장배 아이스하키대회 개최

아산시 체육회 주최 · 아산시아이스하키협회 주관

아산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아산시아이스하키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아산시협회장배 전국아이스하키 최강전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아산이순신빙상장에서 개최된다.

충청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학생선수들과 직장동호인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아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1회 아산시협회장배 전국아이스하키 최강전은 서울, 강원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등 초등부 8개팀과 성인부 4개팀 선수단 200명이 모여 이틀동안 대회를 치루며 선수단 포함 5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아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대회에 충청남도 · 아산시 · 충남아이스하키협회가 후원하고 앙즈로여성병원, 도솔한방병원, 덕산한의원, 센트럴치과, 장수한의원, 온양행궁, MJ커뮤니케이션이 협찬했다.

협회 관계자는 "충청도 최초로 아이스하키대회개최를 아산시에서 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대회를 참가한 모든 팀과 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대회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아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아이스하키대회에 아산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피아니스트 이현경의 "슈만과 사랑에 빠지다"

대전의 차세대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이현경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슈만의 명곡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연주함에 있어서 내면으로 느끼면서 가슴으로 연주한다면, 분명히 관객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그녀는 자신이 그 동안 느끼고 연구했던 슈만의 음악세계를 여과없이 선보이려 한다.

이번 공연에서 그녀는 슈만이 클라라에게 헌정한 '피아노 소나타 제1번 F#단조'를 연주하고 이어서 슈만의 모음곡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번호 16번'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이현경은 대전예술고등학교, 목원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실기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현재, 실내악과 솔로를 병행하며 국내외로 왕성하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이현경 피아노 독주회 "슈만과 사랑에 빠지다"를 통해서 이 더운 여름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선선한 저녁과 피아니스트 이현경의 슈만의 음악세계에 관객들을 초대한다.

송병배기자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표이사 안 경 호
www.sw-motors.com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 혁 건 Mobile 010-8422-6946

대림산업사업소- 대전삼성4구역 도시정비조합과 가계약 조인식 체결 최근대전 삼성4구역 도시정비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사업소(소장김은철)와 대전 삼성4구역 도시정비조합이 9일 조합사무실에서 가계약 조인식을 체결함으로써 대전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토론회에 참석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유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아산폴리텍대 방문

'국내 영어캠프 참여 재학생 간담회'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지난 8일,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국내 영어캠프 참여 재학생 간담회'와 아산캠퍼스 교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MOU를 맺고 있는 해외 대학교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캠퍼스의 국제교류협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하계 방학 중에 국내, 국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아산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국내 영어캠프는 7.1(월)~12(금)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또한 필리핀, 미국, 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 영어캠프는 3주 동안 이뤄진다. 참여 학생은 교육비와 문화체험비 등만 지불하고, 항공료 등은 폴리텍대학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산학사업부(032-650-6664~6665)에 문의할 수 있다.

이석행 이사장은 국내 영어캠프 현장을 방문하고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방학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니 대견하다."며, "영어캠프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연수에 임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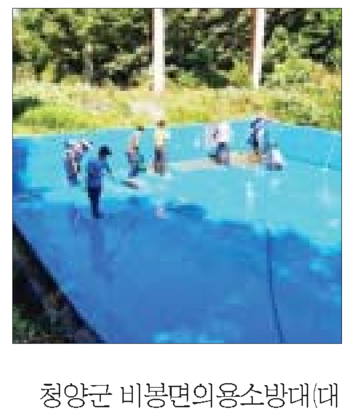
영어캠프 간담회에 앞서 이루어진 업무보고에서 장우영 학장은 7~8월 아산캠퍼스에서 진행 예정인 국내 영어캠프 외에 '특성화고 교원연수', '몽골 국제기술봉사',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미래성장동력 학과개편'와 '러닝팩토리(Learning Factory) 추진계획' 등 주요 업무현황과 캠퍼스 운영 전반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였다.

이어 '아산캠퍼스 교직원의 대화'에서는 교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법인 및 이사장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석행 이사장은 "교직원들이 바라는 복지, 처우개선 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직원 모두가 폴리텍의 한 가족"이라며,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준 덕분에 우리 한국폴리텍대학이 경영평가 'A등급'과 청렴도 평가 '1위'를 수상하는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캠퍼스방문을 마무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비봉면 의용소방대, 환경정화활동 전개



청양군 비봉면의용소방대(대장 이우석)는 지난 6일 관산리 체육공원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주변 잡초제거, 수영장 청소 활동을 전개했다.

이우석 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들이 깨끗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경학 비봉면장은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비봉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중구 자율방재단 "얼음물로 더위 쫓아버리세요"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날씨변화에 취약한전통시장 이용자 감소를 막고 폭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9일 전통시장에서 얼음물 1,000개를 나눴다.

순천향대,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과 상호교류 협약 체결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9일 오전11시30분, 교내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한상경)과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석대 뮤지컬전공, 제13회 DIMF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서 최우수상·연기상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문화예술학부 뮤지컬전공은 7월 8일(월) 늦은저녁,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13회 DIMF(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웨딩데이(Wedding Day!)'로 최우수상(단체상)과 연기상(개인상)을 수상했다.

송악면 행복키움 '저소득층 여름나기 물품나눔' 행사 아산시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송창운)은 지난 8일, '저소득층 여름나기 물품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키움추진단의 기금으로 1대1 저소득층 결연대상자 24명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을 준비해 단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당진화력본부, 충남도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참석

"착한 소비 저희도 함께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 본부(본부장 박윤옥)는 9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201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에 참석해 사회적 유통 실현과 공공기관의 책임 구매 활성화를 위한 비전 선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사 및 12개 공공기관장과 3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소개에 그치지 않고 기관과 기업 담당자의 1:1 상담으로 실효성 있는 상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충남지역에 특화된 제품·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오픈형 홍보부스가 운영되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통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당진화력을 포함한 16개 기관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상호교류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책임구매율 향상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 또한 체결했다.

박윤옥 본부장은 "요즘 현명한 소비자들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의 제품 구매를 통해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당진화력본부 역시 '착한 공적 소비'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화력본부는 현재 전체 구매금액의 3% 이상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대 법률센터-대전충남소비자연맹

캠퍼스 열린 청렴 모의법정 열어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와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9일 오후 3시, 충남대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청렴 모의법정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모의재판 형식으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권익 인식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캠퍼스 청렴 모의법정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모의사건'을 주제로 대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해 형사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지역의 대학생 및 시민이 참석해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이정복기자

보령 갓바위식품(주), 벨기에 ITQI 크리스탈 어워드 본상 영예

대한민국 최초… 보령산 조미김 우수성 세계에 널리 알려

보령시는 지역의 조미김 생산업체 갓바위식품(주)가 지난달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우수미각품평회(Internationl Taste Quality Insitute, 이하 ITQI)에서 국제 우수미각상의 본상인 '크리스탈 어워드'를 수상해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ITQI에서는 매년 세계의 식음료들에 대해 맛과 향, 식감, 비전 등을 고려한 품평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 협회 출신 셰프와 소믈리에로 이루어진 200명이 넘는 대형 패널에 의해 블라인드 심사되는 명실 공히 유럽 최고의 품평회이다.

올해는 전 세계의 식음료 1886개가 출품돼 제품을 품평 받았으며, 평균 점수 70점 이상 획득 하면 1스타, 80점 이상 2스타, 90점 이상이면 3스타 상을 받게 되는 상이다.

갓바위식품(주)는 한국 고유의 파래김, 돌김 등 조미김 을 출품해 오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스타 상을 수상해왔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업체들이 수상해오던 '크리스탈 어워드'를 올해는 갓바위식품(주)가 대한민국 최초로 수상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이에 갓바위식품(주)는 이계옥 대표와 김영진 상무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수상식장에 직접 가서 수상을 하여 보령의 맛과 조미김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보령=김정미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시민과의 대화마당' 반포면 방문

반포면민 1천명, 반포면 복합청사 신축 청원서 제출

김정섭 공주시장은 9일 반포면을 찾아 '시민과의 신바람 대화마당'을 갖고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마당은 김 시장을 비롯한 국장단과 시의원,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반포면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시장은 "반포면은 공주시 얼굴이다. 대전·세종과 맞닿아 있고 계룡산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고 있다"며,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포면민들은 노후되고 협소한 면사무소의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공주시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청원서에는 반포면 이장단과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그리고 일반 주민 등 1천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면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청원을 잘 받았다. 청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좁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공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만큼 면민분들께서 의지를 모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민들은 ▲동학사 주차장 화장실 설치 ▲학봉초등학교 강당 건립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그린벨트 해제 통한 귀촌마을 조성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제도 세종·대전 연계 요구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정섭 시장은 "어느 읍면동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민 의견이 접수된 것 같다.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2차 추경에 반영해 적극 시행하고 장기 과제는 관심을 갖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과 본청의 권한을 읍면동에게 최대한 이양하겠다. 생활상의 문제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상의, 공론을 모아 해결하고 6개월 후 만남에서는 더 큰 공주시의 발전방안을 갖고 토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순방일정은 ▲11일 계룡면, 금학동 ▲12일 탄천면, 옥룡동 ▲15일 월송동, 이인면 ▲16일 유구읍, 신관동 순으로 진행된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건강 칼럼

여름만 되면 배가 아픈 우리 아이, 삼복첩으로 겨울까지 건강하게!

이혜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소아청소년센터 교수

7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아이스크림, 팥빙수 같은 차가운 간식을 먹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에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은 바로 여름 배탈과 냉방병이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한다면 여름에는 소화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여름에 아이들에게 배탈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한 음식 섭취 같은 위생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몸 내부와 외부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외부는 더운데 몸 안은 찬 음식을 먹을 일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탈이 나는 것이다. 또한 찬 음식을 먹으면 입이 바로 차가워지고 식도를 거쳐 위에서 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곳이 차가워진다. 고형 음식물은 위장에서 연동운동을 거쳐 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의 차가운 상태로 장에 도달하진 않지만 액체인 경우에는 위장을 통과하여 바로 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곧바로 장이 차가워진다. 장에는 거대한 림프조직이 점막 면역을 구성하는데, 그 조직이 차가워져 제 기능을 못하면서 질병이 생기게 된다. 우리 선조들은 '以熱治熱(이열치열)'이라 하여 더운 여름에 삼계탕과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 차가워진 속을 달래주고 안과 밖의 온도를 맞춰주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한의학에서는 '冬病夏治(동병하치)'라는 치료법이 있다. 겨울에 걸릴 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이다. 여름에 찬 음식을 많이 먹어 속을 차갑게 만든 상태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陽氣(양기)가 떨어져 감기 같은 질환에 더 취약해 질 수 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강한 삼복(초복, 중복, 말복)날에 오장육부의 기운을 강화하는 경혈자리를 선택해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약재를 붙여 따뜻한 기운을 넣어준다.

삼복첩은 중국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전통 한방 요법으로 중국, 대만 등지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여름철에 냉방병, 구토, 설사 같은 질환이 잘 생기거나, 겨울철에 감기, 축농증, 천식,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으며, 그 효과도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삼복첩 치료를 통해 천식 증상의 악화를 막고 폐기능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여름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이열치열의 자세로 찬음식은 가능한 멀리하고 몸을 너무 차갑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아이들과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 "아이스크림 맛이 있어서 하나먹고 둘 먹고 또 먹었더니 꾸르르르르 꾸르르르르 꾸륵 꾸륵 배가 아파요."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간식은 1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단 규칙을 정해 놓으면 아이들도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여름철 이열치열 건강관리를 통해 겨울철 건강까지 미리 챙길 수 있다.

칼 럼

문재인케어, 지난 2년간의 성과

송병배 기자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상급병실(2·3인)과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환자가 부담해온 의료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또한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항목의 의약품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켰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가 진료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도 63.8%에서 65.3%로 증가했다.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었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6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경감시켰다.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15세 이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경감시켰고, 1세 미만 외래진료 본인부담도 21%~42%에서 5%~20%로 낮췄다.

난임 여성을 위해 난임치료시술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비용을 30%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정·시행('18.7월)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안전망을 강화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작년 한해 177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건정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해야하는 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제2회 산림복지 어린이 사생대회

박근영양 '숲속 친구들' 대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5월 전국의 산림복지시설(10곳)에서 진행한 '제2회 산림복지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박근영(5) 양의 '숲속 친구들' 작품이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부 국정과제(67번)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해 전국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경북 영주·예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현장행사를 가졌으며, 같은 달 전국 산림복지시설에서도 현장접수를 통해 총 1393명의 어린이가 사생대회에 참가했다.

진흥원은 산림, 미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대상 1명(박근영), 금상 2명(김태형 외), 은상 7명(이채원 외), 동상 10명(김범준 외), 특선 30명(송단우 외) 등 총 50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작 심사는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조태영 이사,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심혜진 이사, 산림조합중앙회 김병무 홍보실 문화팀장 등이 진행했다.

시상은 상장(산림청장상 1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 19점, 국립산림치유원장상 30점)과 부상을 각 소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보내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균 원장은 "이 행사는 숲체험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소중한 추억을 표현하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숲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2회 산림복지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상(산림청장상) · 박근영(성곡어린이집)

○ 금상(진흥원장상) · 김태형(유림초3) · 이서연(선우어린이집)

○ 은상(진흥원장상) · 이채원(성곡어린이집) · 전승하(더숲어린이집) · 이정우(혜원어린이집) · 윤상원(안정초1) · 고표송(광주산수초6) · 이인아(영주남부초2) · 이서하(울산대현초6)

○ 동상(진흥원장상) · 김범준(율곡초2) · 고범상(광주산수초4) · 신지호(대전삼성초1) · 조서연(더숲어린이집) · 조민재(성곡어린이집) · 이하린(세종대평어린이집) · 강민찬(이화어린이집) · 고민지(종촌어린이집) · 권은우(에밀어린이집) · 김경남(유림초1)

○ 특선(치유원장상) · 송단우(고창초2) · 신예린(정관초2) · 이우주(더숲어린이집) · 고나윤(광주산수초2) · 장준영(사리울초2) · 김민서(유림초1) · 노가윤(연동어린이집) · 우서영(성곡어린이집) · 남은서(세종대평어린이집) · 김원빈(이화어린이집) · 류서영(하나유치원) · 이장원(이화어린이집) · 유지유(더숲어린이집) · 조민정(동화유치원) · 최연우(이화어린이집) · 김서래(더숲어린이집) · 권민서(섬강초병설유치원) · 김정현(봉산어린이집) · 이승민(안정초2) · 김범준(성곡어린이집) · 황예원(미동어린이집) · 남궁연우(무지개어린이집) · 정도윤(봉산어린이집) · 구나래(무지개어린이집) · 유다은(보람더원어린이집) · 류시혁(성곡어린이집) · 정용학(성곡어린이집) · 김서아(금강라온어린이집) · 이혜린(보람더원어린이집) · 성윤이(더숲어린이집)

송병배기자

서산시,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평가는 지방재정 지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을 도모해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추경예산 신속편성, 본예산 및 추경예산 재정확대, 일자리사업예산의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서산시는 충남에서 가장 빠르게 1회·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생활형 SOC사업 258억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 40억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책 사업 26억원 ▲일자리 사업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민 체감형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1,843억원을 증액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지원 및 지역경제를 위한 5,176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3,876억원(74.87%)을 신속히 집행해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편성과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침체 및 고용감소 등 위험 요인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사 설

훈육을 내세운 학대 안 된다

정부가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월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출생신고통보제, 지자체 책임강화, 친권자에 의한 체벌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도 못가고 학대받고 방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이를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리에서부터 가정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는 등의 개편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조속한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혼이나 빈곤, 학대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이 한해 5천명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정부나 지자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찬반 논란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모의 체벌권을 보장한 민법을 고쳐 어떠한 이유에서건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 역시 주목된다.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도 최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친권자에 의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우리의 민법상 징계권이 아동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아동체벌금지를 담은 법규개정을 권고해 왔다.

그동안 가정 내 처벌을 우리는 '사랑의 매'로 이해하며 비교적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당연시 하는 가정이 지금도 적지 않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로 체벌 필요성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이상이 부모란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잘못된 훈계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체벌에 관대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에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 훈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분명 변화는 있어야 한다. 훈육이란 이유로 가해지는 아동학대와 폭력은 분명 범죄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 쓰레기 더미 처리 서둘러야

주중에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한다. 특히 본격 장마를 앞두고 있어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 수거가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사업장 곳곳과 시민 생활 주변에 산재해 쌓여 있는 각종 산업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종국에는 해양의 어족 자원마저 고갈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류 미래 식량의 보고 바다농장마저 망치게 된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위는 없을 것이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5일 대전·충청권 광역 상수원인 대청호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국토 대청결 활동을 펼쳤다.

국토 대청결 활동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옥천군, 금강홍수통제소·금강물환경연구소·K-water, 환경보전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대청호보전운동본부·대청호주민연대 등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 동구 회남로 일원의 지류하천,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는 호우시 육상에 방치된 쓰레기가 대청호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민간단체 등과 함께 육상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일원에서는 전문 잠수인력(20명), 보트, 대형 바지선 등을 동원하여 수중에 잠겨 있는 폐그물, 폐어구, 폐고철, 폐목재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처리에 나섰다.

아울러, 장마철이 끝나는 7월부터 9월에는 K-water, 대전시·옥천군 등 대청호 수질관리기관들과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대청호 내로 유입된 각종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환경정화활동과 대청호 녹조저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때 산업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성장을 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던 시절, 환경오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도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게 됐다. 환경을 해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돼서는 안되겠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쌓아 올린 성장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되돌린다 해도 수많은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산자수려하고 풍광 좋아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우리 국토 산하다. 바다 또한 청정해역 쪽빛 바다로 푸르름을 더했었다. 이제는 산업화와 각종 개발에 밀려 푸른 자연은 사라지고 있다. 쓰레기는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지자체마다 쌓여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안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깨끗한 영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

금산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관내 대학생 20명 선발 4주간 근무

금산군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0명을 선발, 본격적인 업무지원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요령 등을 전달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금산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공개모집에 모두 105명이 신청 5.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선발되는 것이 취업의 문만큼이나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계 아르바이트는 본청, 면사무소, 보건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보조, 자료정리, 금강여울축제 지원근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 경험을 쌓고 금산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애향심으로 앞으로 금산을 이끌고 미래를 열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매년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명의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하계 아르바이트는 8월 2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된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닥터케어 GOLD

숙취해소

말이 왜 필요합니까?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음주 전·후 각1포

미투 me too 술에 너 이상 당하지 맙시다!!

숙취해소전문기업 닥터케어

대표 조성덕